

시흥문화

2010 Vol.12



 시흥문화원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



갯골생태공원 염전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갯골생태공원, 연꽃단지, 오이도 등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시흥갯골축제, 오이도 조가비 축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시흥의 문화를 담아내고 있다.

또 성장 잠재력을 발판으로 최고의 명품 도시로 군자매립지, 시화MTV, 옛 염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개발 가능지와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수인선,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편리한 대중교통망이 다가오고 있다.



대나무 | 정은경작 순지에 혼합재료, 2009

설죽(雪竹)

동호(同好) 김선필

동지 설달
 시루보다 흰 고깔 머리 없고
 너 홀로 떨치고 있어

독야청청 시공의 굴레 여유롭게
 외면 해온 너

청옥같은 빗갈로 기개를
 뿜내고 있던 너

삭풍 설원(雪原)은 너 기개를 송두리째
 앗았지

사위는 시리도록 하얀 눈발 감싸고
 너의 자랑스런 청죽 기개는
 오간데 없네

광기 번쩍이는 눈 고깔 무거워도
 청록 기상 표표이 감추었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오만한 너

죽엽마디
 광야를 삼킨 저 눈발 녹으면
 다시도 너의 청청마디는
 고고한
 자태를 뿜내겠지

정은경 홍익대 미술대학원 졸업 / 춘추미술대전(미술회관 서울) / 제11회 한국미술제(세종문화회관) / 뉴프론티어전(경인미술관)
 김선필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졸업 / 「문학예술」 신인작가상 시부분 등단 / 시집 「그 많은 세월 속에」 / 칼럼집 「바람은 불어도」

생동감 넘치는 문화원 만들고 싶어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문화원은 원사를 이전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접권이 원활하지 못했던 능곡동에서 현재의 하중동으로 이전한 후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며 분주하게 보낸 한 해였습니다.

늘 반복해온 사업 외 새롭게 추진할 사업을 연구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을 모아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일반강좌 외 야간반 운영과 토요일 어린이 강좌를 개설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소 걱정어린 반응도 있었으나 문화강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몸으로 느끼며 좀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강좌를 찾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조도' 찾기 범시민 서명운동과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어르신문화학교와 문화탐방 등 기존 틀에 머무르지 않고 생동감 있는 문화원을 만들고자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누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문화원 회원을 비롯하여 임원들, 문화강좌 수강생 등 모든 문화가족 여러분의 애정과 격려가 밑받침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시흥문화원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발전시키며 올바르게 보존, 전승해갈 수 있도록 관심으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 문화원사 건립 사항에 대해서도 힘과 애정을 더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12호를 맞는 '시흥문화'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일부 담았습니다. 소중한 원고를 보내주신 집필자와 제작에 힘써 주신 관계자들에게 이 지면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 가정마다 기쁨과 행운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시흥문화원장 정 상 중

시흥문화원 더 큰 도약 기원

기대와 희망을 안고 힘차게 출발했던 기축년(己丑年)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경인년(庚寅年) 새해를 새로이 설계하는 시점에서 한해동안 이루어진 지역문화사업과 전통문화 행사의 자료를 모아 『시흥문화 12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간 『시흥문화 12호』 발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 정상중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는 자본이나 노동력, 토지와 같은 유형적인 물질도 중요하지만, 지식과 정보, 문화창조력과 같은 무형적인 요소들이 경제의 핵심이 되고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며, 시흥시만의 정서와 특색이 담긴 전통문화의 발굴과 재현은 매우 가치 있는 작업이며, 문화유산 되찾기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화활동벤치마킹 등 기존의 틀에 머물지 않는 폭넓은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의 영역을 확대하며 차별화된 고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시흥문화원의 중요성이 더욱 돋보인다 할 것입니다.

특히, 2009년도 7월 문화원사 이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새롭게 자리를 옮긴 시흥문화원이 우리시의 문화시대를 선도하고 41만 시민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크게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시흥문화 12호』의 발간이 우리 것을 찾고 지키려는 노력으로 이어져 시흥의 문화를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져 문화적 역량을 쌓아나가는 좋은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을 바라며, 2009년 한해의 문화활동을 정리한 『시흥문화 12호』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10년 2월
시흥시장

문화 희망의 메시지 역할 기대

60년 만에 돌아온 백호랑이해인 경인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의 문화육구를 충족시켜줄 시흥문화 제12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발굴 및 전승,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사업 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시며, 이번 시흥문화 제12호가 발간되기까지 온갖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상중 시흥문화원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흥문화 소식지는 역사와 전통이 서려있는 우리 시흥시의 다양한 문화활동과 소중한 문화적인 결실들을 담아 많은 시민들에게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 의식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문화와 희망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에는 열정적인 창작정신과 향토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맺어진 시흥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으로, 시흥지역문화를 알리는 귀한 사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흥문화 소식지가 우리의 뿌리를 지키고 시흥의 전통문화를 계승 창조하는 소중한 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문화 창달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 시흥문화원 관계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경인년 새해에도 시흥문화원이 시흥전통지킴이로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시흥시 의회 의장



CONTENTS

002 포토에세이

003 발간사

004 축간사

문화의 현장

008 군자봉 성황제 유가행렬

009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010 효-에너지 페스티벌

012 군장병과 함께하는 성년의 날 행사

013 제주문화원 탐라문화 탐방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

014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강좌

015 정월 대보름제

016 시흥역사자료전시관

기획특집

023 시흥의 인물 윤동욱 선생

024 빼앗긴 문화유산 독조도 찾기

028 시흥문화원 문화강좌

학생 미술·글짓기 공모전

033 학생 미술 공모전 수상작

038 학생 글짓기 공모전 수상작

산책

054 늬내길

시흥리포트

060 시화 조력발전소

차한잔

064 시흥시 미용기능장 제1호

테마기획

068 천년의 신비 방짜유기

074 군자봉성황제 민속보존회

077 청소년 수련관

082 또래소리 기자단

잊혀진 시흥

086 소리를 찾아나선 사람들

091 옛 기억에 대한 풍경

시흥명소

096 물왕저수지

현장스케치

102 우체부 아저씨

105 삼미시장

문화탐방

110 정선 5일장 문화탐방기

114 시흥문화원 사업실적과 계획

군자봉 성황제 유가행렬 (遊街行列)



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군자봉 성황제는 한 해를 빠짐없이 이어온 시흥시의 대표적인 무가의례다.

군자봉 성황제의 유가는 성황제를 매년 음력 10월 3일 지내고, 이듬해 2월부터 군자봉의 성황신을 상징하는 '서낭대'를 모시

고 인근 마을을 돌았다고 한다. (유가(遊街)란 골목골목을 돌며 유희(遊戯)를 벌이는 것을 말한다.) 이때 길게는 3개월 이상 각 마을을 돌았는데, 일제강점기에는 현재의 시흥시 지역은 물론 서울 영등포까지 가기도 했다. 군자봉 성황제의 유가는 「경순

대왕(敬順大王)」이라 쓴 깃발을 앞세우고 그 뒤를 성황신을 상징하는 높이 약 10m에 오색천으로 장식한 서낭대가 따르며 악사, 무당, 풍물패, 서낭대를 모시고자 하는 집주인, 일반 주민이 차례를 이었다고 한다.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제 17회 경기도민속예술제가 용인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시흥시에서는 월미두레풍물놀이팀이 출전하여 공로상을 수상하며 그 전통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았으며, 독조도 서명운동을 포함한 시 홍보부스와 지역의 특산품인 연음식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행사에 참여한 경기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효-愛너지 페스티벌



시흥문화원은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과 이를 통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하고자 노인, 청소년,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노인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의욕과 열정만큼은 늙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문화교실 발표회 및 효-愛너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난달 19일 시흥시청 강당에서 열린 효-愛너지 페스티벌은 학생 글짓기·미술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으로 월미풍물, 잉벌로밴드, 서도소리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참여한 어르신들은 춤, 노래, 악기연주, 연극, 마술 등 열정과 재능, 단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공연을 펼쳤다.

- ▲ 잉벌로밴드 & 시흥시청어린이집 합동공연
- ▼ 경기민요 공연





- ① 기타교실 합주공연
- ② 대우삼호아파트 경로당
- ③ 월미풍물 일반부
- ④ 600경자동차세대 축하공연
- ⑤ 참이슬아파트 경로당
- ⑥ 시조창 공연



군장병과 함께하는 성년의 날 행사



시흥문화원은 전통문화체험의 일환으로 군 장병과 함께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다채로운 축하공연과 흥겨운 무대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참여한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만 20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날이 성년의 날이다.

고려시대 이전부터 발달한 '성년례(成年禮)'는 우리나라 전통의례인 사례문화(四禮文化) '관(冠) 혼(婚) 상(喪) 제(祭)' 중 첫 번째 관문인 '관'에 해당된다.

아이의 시기에서 성인의 시기로 가는 청소년들이 어른의 평상복, 외출복, 관복으로 같이입는 시연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책임과 의무를 깨우치고 어른으로서의 독자적인 권위를 부여받는 의례다.



문화교류 벤치마킹 위한 제주문화원 탐라문화탐방



시흥시의 전통문화를 발굴·보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흥문화원이 제주문화원을 방문해 탐라문화에 대한 정보교환을 가졌다. 2009년 10월 22, 23일 제주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제주문화원 신축 원사 시찰과 활용에 대한 조언을 통해 향후 시흥문화원사의 구상과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 제주문화원의 성공적인 문화프로그램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사례, 독창적인 문화사업을 벤치마킹했다.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사업

2009년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총 10여개국 50여명의 이주여성들이 한국어 수업과 함께 요리교실 수업을 통해 한국의 언어를 익히고 손맛과 정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생활요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어·문화이해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원 연합회가 주최하였으며 시흥문화원이 주관하여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협력으로 진행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강좌



문화원사의 이전으로 시설의 개선과 교통의 편의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양한 문화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강좌의 인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어린이 및 청소년 강좌는 기타교실, 종이접기, 주산암산, 풍물, 마술, 동화발레가 있으며 영어, 드럼교실 등 다양한 강좌가 추가로 개설될 예정이다.



- ▲어린이 풍물놀이
- ① 어린이 기타교실
- ② 동화발레
- ③ 종이접기교실



정월 대보름제



새해의 엄원과 소망을 달에게 기원하는 의미를 지닌 정월 대보름제는 전통문화의 중심에 서 있다.

시흥시에서 열리는 대보름 행사는 시민 문화를 되살린다는 취지와 함께 행사의 마무리는 달집과 갈대밭 태우기인데 참가자들이 불을 댕기면서 소원을 빌게 된다.

진채식 전시, 오곡밥 시연, 연날리기, 투호던지기, 널뛰기, 모형 비행기 날리기, 제기차기, 새끼꼬기, 옷놀이, 소원문 쓰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시흥역사자료전시관

Siheung Museum of History



시흥역사자료전시관이 지난해 8월 28일 능곡동에서 하중동 조은프라자 1층으로 이전해 연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흥역사자료전시관은 선사시대부터 시흥시 승격이후의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시흥의 문화유산과 고문서로 본 시흥, 시흥의 생활자료 등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관람안내

- 관람시간 10:00~17:00
- 입 장 료 무료
- 휴 관 일 월요일
- 전시문의 시흥시 향토사료실 031)310-2936
- 관람문의 시흥문화원 사무국 031)317-0827
※단체관람(10인 이상) 및 전시관 설명을 원하실 경우 사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전시기획 및 구성 시흥시 향토사료실
- 찾아오시는 길
시흥시 하중동 875-1(시흥문화원 1층)

시흥의 문화유산

구석기시대 최초의 시흥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인류 최초의 도구인 뿔석기를 만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소규모의 무리를 지어 채집과 수렵생활을 하였고,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여 살았다. 우리 시흥에서 아직 구석기 유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구석기인들의 흔적은 분명히 남아 있다. 계수동, 도창동, 매화동, 월곶동 등에서 돌을 떼서 만든 여러면 석기와 찌개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시흥 일대가 일찍부터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

신석기시대 오이도 패총과 능곡동 마을

서해에 접한 시흥시에서는 신석기시대 패총과 집자리 유적이 확인되는데, 1980년대 사회지구개발사업으로 조사된 오이도(烏耳島) 유적, 2004년 능곡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발견된 능곡동 마을유적이 대표적이다. 2002년 사적 441호로 지정된 오이도 유적은 옷살막 패총·가운데살막 패총·뒷살막 패총·신포동 패총 등 섬 전체에 패총이 분포하고 있다.



사적 제441호 오이도 뒷살막패총 발굴당시 전경

2004년 발견된 능곡동 유적은 능곡동 삼거리 뒷편의 해발 33m의 구릉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룬 집자리 24기가 발견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만든 사람들



경기도 기념물 제103호 조남동 지석묘

우리 시흥지역에서는 계수동과 조남동, 군자동 외 다수 지역에서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경기도 기념물 103호로 지정된 조남동 고인돌은 탁자식으로 상당히 대형에 속하는 크기다. 조남동 고인돌과 가까운 산지와 군자동 고인돌과 가까운 거모동 등지에서 청동기시대 집자리 일부(파괴된 상태) 일부와 무늬없는 토기 조각, 간돌도끼 등이 발견된 바 있고, 능곡동 신석기 마을유적을 발굴조사할 때도 파괴된 청동기시대 집자리 2~3기가 확인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시흥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청동기시대 집단이 살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인근의 광명, 의왕, 안산, 군포, 안양 등지에 분포한 다른 고인돌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 지역 청동기시대 문화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철기시대 삼국시대가 열린다

한반도의 초기 철기시대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소국들이 형성되는 역동의 시기였으며,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흥 지역은 그 지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삼국이 번갈아 지배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건국된 초기 백제의 영향권 하에 있어 A.D. 4세기 무렵까지 안정적으로 백제의 지배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475년 고구려의 남진으로 인해 고구려의 영역이 되었다가,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553년 이후로는 신라에 속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직 시흥 지역의 삼국시대 문화상이 뚜렷하지 않지만, 안현동과 과림동 등지에서 타날 문토기편이 발견되었고, 최근 능곡동에서 백제의 무덤과 유물이 확인되는 등 삼국시대의 철기문화에 대한 또다른 발견 가능성이 기대된다.

고려시대 불교의 나라, 청자의 나라

고려시대의 문화는 불교문화와 청자문화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도 이러한 고려문화의 특징을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유적이 있다. 보물 제1324호인 '시흥 소래산 마애상(始興 蘇萊山 磨崖像)'은 소래산 중턱에 위치한 병풍바위(일명 장군바위)에 선각(線刻)되어 있는데, 머리에는 연화문(蓮花紋)과 당초문(唐草紋)이 장식된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얼굴은 이목구비가 부리부리할 정도로 큼직하게 표현되고 있어 표현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마애상은 우리나라 석불조각으로는 최대 규모에 속하는데, 앞은 선각임에도 불구하고 기법이 우수하고 회



보물 제1324호 시흥 소래산 마애상

화적인 표현이 뛰어난 세련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어 찬란했던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일면을 느낄 수 있다.

사적 제413호로 지정된 '시흥 방산동 청자·백자 요지(始興 芳山洞 靑瓷·白瓷 窯址)'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로 편년되는 유적으로 특히 중국의 가마 축조방식인 벽돌가마(磚築窯)의 형태를 띠고 있어 중국으로부터 도입된 요업 기술이 우리나라로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다. 특히 청자와 백자가 동시에 출토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청자와 백자의 발생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시대 연꽃의 고을, 시흥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되어 있는 '관곡지(官谷池)'는 조선 전기의 유명한 관료인 강희맹(姜希孟, 1424~1483)이 명나라에서 전당홍(錢塘紅) 연꽃씨를 가져다 심은 곳이다.

'관곡지'와 관련하여 1846년 권용정(權用正)이 작성한 「연지사적(蓮池事蹟)」은 '관곡지'의 유래와 '관곡지'를 정비하게 된 배경 및 경과, 연지기(蓮直)의 배치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관곡지'의 전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호조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시흥

경종(景宗)대의 '호조방죽(賑廳堤園) 축조와 '호조별[石場屯]'의 조성은 시흥 지역 토지이용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던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당시까지 어촌 중심이었던 시흥 지역이 농촌과 어촌이 어우러진 곳으로 변모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권농편」

'권농사(勸農社)'는 정조(正祖)가 1789년 화성(華城)에 행차하면서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된 것을 계기로 결성되었는데, '권농사'에서 작성한 「권농편」에는 당시 사회에서 만연하던 지주제의 발달과 과도한 농민층의 분해를 비판하고, 향촌 단위의 공정한 부세부담, 빈농 보호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드러나 있다.

일제강점기 시인의 마을, 연성음사

'연성음사(蓮城吟社)'는 시흥 지역의 한시(漢詩) 문인들을 중심으로 1920년부터 1929년까지 활동했던 시 동호회로 일제강점기 지역 문인들의 적극적인 문화활동을 보여 준 중요한 사례에 해당한다. 「연사명첩(蓮社名帖)」의 서문을 살펴보면 선현들이 시문(詩文)을 창작하던 뜻을 이어 시 모임을 결성했다는 것에서 문화적 자긍심이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모임은 단순히 회합을 갖고 한시를 창

작·품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부조하는 계의 전통도 있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연사명첩」과 「연성음사시첩」은 감시와 검열이 강화되었던 일제강



「연성음사시첩」

점기의 어려운 시기를 관통하는 지역 문인들의 문학관과 사회의식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자료이다.

시흥의 생활사자료

시흥지역에서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자료를 전시하였다. 우리 생활과 전통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업, 신앙, 세시 등에 관련된 풍속과 관습, 이에 사용하는 의복, 기구, 가옥 따위의 물건을 말한다.

남녀의 머리쓰개(관모)와 장식, 머리매무새를 다듬는 용구와 함께 바깥주인이 거처하는



생활사 자료 전시관 전경

사랑방과 부인이 머무르는 안방에 두고 쓰는 소품을 모았다. 바구니와 떡살, 다식판, 막사발 등 평범한 가정집에서 쓰는 부엌 살림살이와 함께 고무래와 살포, 도리깨 등 농사용구는 물론 고드래틀, 신골, 숯다리미와 화로 등 이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생업과 일상에 관련된 소품도 다양하다.



시흥의 옛 염전 전시관 전경

시흥의 옛 염전

『세종실록』 지리지 안산군 조에 '어염(魚鹽)으로 생계를 삼고, 염소(鹽所)가 5곳 있다'는 기록이 있고, 인천군 조에도 '염소가 6곳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고려사』 식화지에 '권세있는 가문이 사사로이 소금을 거두어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기록 등으로 보아 소금 또는 염전과 관련된 시흥 지역의 역사는 적어도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으로 생각된다.



소금을 담은 염부들(1950년대, 군자염전)

본래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소금 생산은 자연염(煮鹽) 또는 전오염(煎熬鹽)이라 하여 바닷물을 소금가마에 끓여 만들었는데, 개항과 함께 천일염 방식의 중국소금이 들어오자 우리나라 염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천일염은 소금을 끓이는 연료비가 필요없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

경제적인 데다, 일제가 천일염 관영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염은 차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통감부는 1907년 인천 주안(朱安)에 천일염전을 시험축조하였고, 이를 확대하여 중국 소금에 대항하고, 중국 소금으로부터 조선 소금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기에는 식민지 재정확보책으로 염업을 관영화하여 통감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일본의 섬유공업이나 비료공업의 발전에 필요한 원염(原鹽)을 조선의 염전에서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제는 크게 4기에 걸쳐 경기도, 평안남도, 황해도 일대에 천일염전을 축조·확장하였다. 시흥 지역의 경우, 군자염전(당시 시흥군 군자면, 현 정왕동 일대)이 3기인 1921년에서 1925년 사이에 건설되었고, 소래염전(당시 부천군 남동면, 현 포동·장곡동 일대)은 마지막 4기인 1934년에서 1937년 사이에 만들어졌다. 1945년 광복 이후 정부는 남한 지역에 소금이 부족해져 민간염전의 개발을 적극 권장한 결과, 공급 과잉으로 소금 값이 폭락하면서 염전업은 불황에 빠지게 된다. 1961년에는 소금 전매법이 폐지되면서 민영화로 접어들었으나, 도시화의 진전과 더불어 1996년 소래염전을 마지막으로 시흥지역의 염전은 모두 폐염되었다.



기획특집

- 시흥의 인물 윤동욱 선생
- 빼앗긴 문화유산 독조도 찾기
- 시흥문화원 문화강좌





시흥의 인물 윤동욱 선생 선정

시흥문화원은 매년 시흥지역의 인물을 체계적으로 발굴, 선양해 시흥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신문화를 꽃피우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원은 역사문화 인물 선양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흥을 빛낸 역사적인 인물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매년 '시흥을 빛낸 인물'을 선정·발표해 집중 선양할 계획이다.

선정된 인물에 대해 심포지엄, 평전 간행 등 지속적으로 학술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생애 업적에 대한 인터넷, 포스터, 리플렛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 역사문화 인물을 소재로 한 기념비 건립과 콘텐츠를 개발해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흥문화원은 2009년 시흥의 인물로 윤동욱 선생(사진)을 선정했다. 시흥의 인물로 선정된 윤동욱 선생은 1891년 시흥시 산현동에서 출생해 29세 되던 해에 당시 수암면 일대 독립만세운동을 선두에서 지휘했으며, 수암면 사무소 앞에서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다. 독립선언서 낭독 후 성난 군중들이 면사무소·주재소 등을 불태우자는 소리에 독립이 되면 관공서는 국유재산이니 망가지면 안된다며 흥분한 시위 군중을 무마시켰다.

또한 순사 임건호씨에게 당신도 조선인이니 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는 등 대한민국 독립에 앞장서서 헌신하신 인물이다. 시민의 힘으로 기념비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해 모금에 동참한 시민들과 오는 3.1절 기념식 날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빼앗긴 문화유산 독조도 찾기

- 범시민 서명운동 -

시흥문화원이 '빼앗긴 문화유산 독조도 찾기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문화원은 서명운동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와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 문화재를 찾아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9년 8월 10일 시흥시청 앞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해 대형마트 및 시장, 거리 서명운동 등 46회를 실시해 2009년 12월 23일, 3만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향후 시흥문화원은 2010년 2월 말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을 방문해 독조도 전시상태 확인, 서명지 전달, 관장과의 면담, 반환요청서 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환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독조도(獨釣圖)

국가/시대 : 한국 조선 15세기

크 기 : 86/132cm

재 료 : 족자 비단에 담채

작 가 : 사숙재 강희맹(姜希孟)

소 장 자 : 도쿄 국립박물관

독조도는 문장뿐 아니라 소나무와 대나무 및 산수화를 잘 그렸던 강희맹 선생의 작품이다.

독조도는 우측 상단의 오언시(五言詩) 내용으로 보아 이른 춘경(春景)을 그린 것으로 강 안에 말라 죽은 교목 두 그루를 중심으로 갈대숲, 강 위에 배와 인물, 대안의 모래 언덕 등 강가의 근경만을 화려하게 담았는데, 뛰어난 묘사력으로 쌀쌀한 기운이 채 가지지않은 봄의 스산한 분위기를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강희맹은 누구인가?

강희맹 [姜希孟, 1424~1483]

조선초기의 문신이자 우리 나라 최초의 농학자인 강희맹 선생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순(景醇) 호는 사숙재(私淑齋) 운송거사(雲松居士) 국오(菊塢) 만송강(萬松岡)이다.

세종의 이질(姨姪)이고,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로 잘 알려진 조선초 대표적 사대부화가 강희안의 동생이다.



1447년(세종29)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종부시주부로 벼슬을 시작했다. 1450년 예조좌랑에 이어 돈령부판관을 역임하였다. 1453년(단종1) 예조정랑이 되었으며, 1455년(세조1)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고 세조로 등극하자 원종공신 2등에 책봉되었다. 1463년 중추원부사로 진헌부사(進獻副使)가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왔다. 1464년 부운으로 어제구현재시(御製求賢才試)에서 차석, 1466년 발영시(拔英試)에서 3등, 등준시(登

俊試)에서 차석을 차지하였다. 세조의 총애를 받아 세자빈객이 되었으며, 예조판서·형조판서를 지냈다. 1468년(예종1) 남이(南怡)의 옥사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익대공신(翼戴功臣) 3등으로 진산군(晉山君)에 책봉되었다. 1471년(성종2)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책봉되고, 지춘추관사로 신숙주 등과 함께 《세조실록》 《예종실록》을 편찬하였다.

이어 돈령부판사·우찬성 등을 거쳐 1482년 좌찬성에 이르렀다.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로서 경사(經史)와 전고(典故)에 통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맡은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면서도 겸손하여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관인적 취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에서 널리 전승되고 있던 민요나 설화에도 남다른 식견으로 관인문학(官人文學)의 틀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는 면도 있었다. 이런 예는 당시 농정의 실상과 농민들의 애환을 노래한 <농구십사장(農謳十四章)>에 잘 나타나 있다.

문집으로는 《금양잡록(衿陽雜錄)》 《촌담해이(村談解)》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및 형희안의 시를 모아 편찬한 《진산세고(晉山世稿)》가 있다. 이 밖에 서거정이 성종의 명을 받고 편찬한 《사숙재집(私淑齋集)》(17권)이 전한다. 세조 때 《신찬국조보감》 《경국대전》, 성종때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국조오례의》 《국조오례서례》 등의 편찬에도 참여했다.

오쿠라는 누구인가?

오쿠라는 한국에서 문화재 수탈의 거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오쿠라 타케노스케[小倉武之介, 1870~1964]는 1870년 유복한 농가에서 태어나 1896년 동경제국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일본 우편선에서 근무했다가 1903년 조선정부철도회사에 취직하면서 조선으로 건너왔다. 그는 당시 '콜브란'이란 미국인으로부터 민간전기사업이 장차 조선의 유망사업이 될 것이란 귀뜸을 받고 이 사업에 관한 각종 자료를 가지고 대구에 와서 정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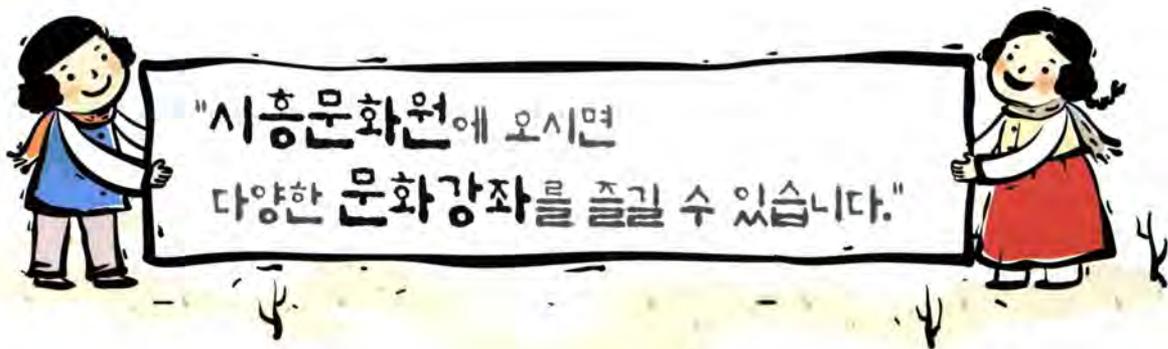
오쿠라는 대구성의 동문과 북문 외곽 땅을 사 모은 뒤, 대구성 철거에 따른 부동산 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처음 50Kw의 소규모 발전사업에서 시작, 대구전기회사를 설립하여 사장이 되었다. 이 회사는 더욱 발전하여 대구는 물론 전국에 자매전기회사를 거느린 대흥전기회사의 사주가 된 것이다. 이들 회사들이 해방 후 남선합동전기로 통합되었다가 이후 한국전력의 모태가 되었으니 그는 마침내 조선 제일의 전기회사를 소유한 대부호가 되었다. 오쿠라는 전기사업에서 번돈으로 금융업에도 진출하였고 대구상공은행장과 대구증권회사 사장도 겸했다. 또한 대구상공회의소 회장과 경북도 평의원, 대구 부의원도 수차례 겸직하면서 대구의 대표적인 거부이자 영향력이 큰 인물로 기세를 드높였다. 오쿠라의 한

국 문화재 수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1921년경부터라고 전해지며 이후 30여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1920년대 오쿠라는 전국을 돌며 신라와 가야의 국보급 유물들을 수집, 대구 동문동 일대에 7백여평에 넓은 집을 짓고 수천 점의 유물들을 보관하였다.

하지만, 패전으로 일본으로 쫓겨가게 되자 이렇게 수집된 유물의 일부를 동경에 있던 오쿠라의 저택에 가져다 놓았고 일부는 대구에 있던 오쿠라 집안에 보관하였다. 오쿠라는 일본에 가져간 유물의 보존을 위해 재단 설립을 결심하고 치바현 나라시노시 미모미에 있는 자신의 저택 내에 수장고를 만들었다. 1958년에 “오쿠라 컬렉션 보존회”라 이름하여 이를 실현시켰는데, 오늘날 일본에서 명성을 떨치는 바로 “오쿠라 컬렉션”의 모체가 된다. 오쿠라는 한국에서 다 못가지고 간 유물들이 애석해 여러 번 염탐꾼을 대구에 보내기도 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1964년 12월 26일 9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재단은 아들 야스유키[安之]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세금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쿄박물관에 기증하면서 1982년 오쿠라 개인 컬렉션은 해체되었다.

“오쿠라 컬렉션”은 한 사람의 골동품 수집의 열정으로 여기기에는 그 정도가 편집광적이며 문화재 수탈 욕구가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글 | 이지영 · 사진 | 시흥문화원

시흥지역 고유문화의 보존, 발굴 및 전승과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교육사업 등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흥문화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하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강좌의 수강생을 연중 수시로 모집하여 한 층 더 가까이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

한지, 양초, 구슬, 꽃꽂이 등을 수강할 수 있는 공예 강좌, 영어동화를 비롯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배울 수 있는 언어강좌,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산암산, 한자급수, 종이접기, 마술, 클레이점토공예, 사물놀이, 통기타, 동화발레 등이 준비되어 있다.

전통강좌로는 시조창, 서도소리, 서예 및 사군자, 경기민요, 사물놀이가, 미술 강좌에는 네일아트, POP아트, 북 아트를, 음악 강좌로는 통기타, 노래교실, 실버밴드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건강강좌로는 요가, 댄스, 건강라인댄스, 한국무용기초, 골프기초 등이 있다. 이밖에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드럼교실과 월미풍물교실 초급반이 신설되었다. 타 문화센터보다 훨씬 저렴한 수강료에 최고의 강사에게 배울 수 있으니 이것이 일석이조의 기쁨이 아닌가 싶다.

사물놀이 강좌 엿보기

풍물음악의 타악기인 팽과리, 장구, 북, 징의 가락을 배우며 우리가락의 멋과 흥으로 서로 어우러지는 국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강좌가 있다고 해서 한걸음에 달려갔다. 100미터 밖에서부터 벌써 문화원이 찌렁찌렁 울린다. 가까이 다가갈수

록 뭉가 가슴으로 느껴지는 '흥'에 절로 장단이 맞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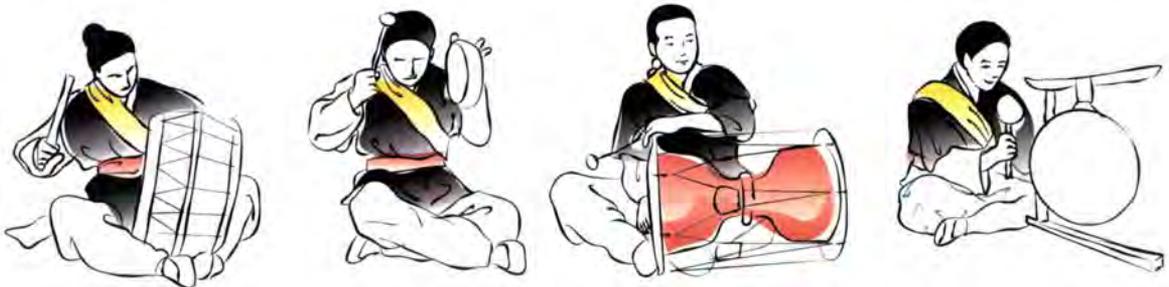
사물놀이 강좌는 시흥의 민속예술인 월미두레 풍물놀이 전승사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시흥 월미두레 풍물놀이는 조선시대에는 '상직(上職)풍장'이라고 하여 경기지방은 물론 궁중에까지 널리 알려졌으며, 시흥 지방에 남아있는 풍물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편제와 예술성을 지닌 풍물놀이로, 농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형성해 주고 마을의 화목을 촉진시켜 주는 민속축제이다.

낮에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매주 화요일 저녁 7시가 되면 '사물'에 대한 애정 하나씩을 가슴에 품고 조금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강의실로 들어서지만, 북채를 잡는 순간부터 에너지가 넘친다. 사물 중에서도 장구는 기본으로 익혀야 한다. 앉는 자세와 채잡는 손 모양, 장구위치까지 바르게 교정한 후 '딩 덩 쿵 따궁~' 휘모리장단에 맞춰 연습이 시작된다.

남편 박필기씨는 북을, 아내 유미자씨는 장구를 친다. 가락에 맞춰 중간 중간 눈빛 교환도 해가며 한바탕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갑자기 부러워지기까지 하다. 이런 경우를 보고 '부창부수'라고 해야 하나? "부부가 함께하니까 대화시간도 길어지고, 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부부사이도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며 한껏 더 다정한 포즈를 취한다.

'갱갱 개갱개갱' 팽과리가 신호를 주자 본격적인 사물놀이가 시작된다. 딱히 악보라는 것도 없이 서로의 느낌으로 이어지는 장단에 맞춰 신명나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듯하다. 현대음악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전율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전통연희단 꼭두쇠 김원민 단장의 뒤를 이어 올해부터 그를 '사부님'으로 부르는 김현희씨가 사물놀이 팀을 맡아 지도한다. "사부님이 해 오신 것처럼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뒤로 한 채 연습실을 빠져나왔다.





'잉벌로 밴드' 결성

'잉벌로 밴드'는 어르신 문화학교의 프로그램으로 2009년 5월에 결성된 밴드로 김정팔 단장과 남궁기문 부단장이 주축이 되어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음악 강좌의 실버밴드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평소 음악과 악기연주에 관심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로 이루어진 밴드는 '잉벌로'란 넓은 땅, 뻗어나가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흥지역의 옛 이름으로 어르신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널리 퍼져 뻗어 나가길 바라는 바람을 밴드이름에 담아낸 것이다.

연습실을 찾아 문화원에 들어선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겉으로 보이는 외모, 그것도 흰머리만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정녕 실버밴드가 맞는지 내 눈을 의심해야 했다. 악기 다루는 손놀림이나 포스가 정말 대단했다. 특히, 베이스기타를 맡고 있는 김용란(60세)님은 잉벌로밴드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취미생활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라고 말씀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젊음' 그 자체다. 밴드에 들어온 지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배우고 싶은 악기는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김중경(67세)님은 조금은 수줍어 하면서도 그 속에는 자신감이 내포된 목소리로 "이 나이에 나에게도 목표라는 것이 생겼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며 음악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볼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원들의 대부분이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었다. 음악에 대한 기초이론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배워가며, 익혀가며, 노력했다. 드럼, 건반, 베이스, 일렉 기타, 색소폰, 아코디언, 붐고, 기타 타악기와 노래실력을 갖춰 2009년 9월 결성된 지 5개월 만에 '제1회 대한민국 나이 없는 날' 행사에 참가해 첫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관객들에게 많은 박수갈채와 큰 호응을 받았으며, KBS 2TV '아침뉴

스타임' 과 라디오 등 여러 방송매체에 소개되는 성과도 거뒀다. 이후 잇따른 초청 공연 요청 때문에 이제는 연예인들보다 더 바빠졌다며 기분 좋은 불평들을 토로한다. 어느 드라마에 나왔던 대사처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말이 새삼 더 와 닿는 날이었다.

열정과 용기로 가득찬 잉벌로 밴드는 오늘도 '홍도야 우지마라' 를 어디선가 멋들어지게 연주하고 있을 것이다.

문화교실 발표회 및 효-愛너지 페스티벌 개최

2009년 12월 19일 시흥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해 동안 문화교실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문화교실 발표회와 함께 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공연 발표회 등으로 채워진 문화교실 발표회 및 효-愛너지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문화원은 노인들의 것은 낡은 것, 오래된 것 이라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의욕과 열정만큼은 결코 늙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이를 잊고 3대가 함께 할 수 있는 '나이 없는 날' 이 축제의 장이 되길 희망하며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7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원에서 주최한 '시흥시 학생 글짓기, 미술대회' 시상식으로 시작됐다.

특히, 특별 시사회를 가진 영화 '로스트 엠파이어' 는 명성황후와 대한제국에 대한 재조명과 왜곡된 역사관 재정립을 위해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로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행사를 더욱 의미있게 했다.





학생 미술 공모전

- 대상 성다솜_장곡고 1학년
- 최우수상 김수아_은계초 4학년
 길태연_대흥중 1학년
 민지혜_은행고 2학년
- 우수상 정희진_은계중 2학년
 이지아_시흥초 4학년
 김희원_시흥은행초 1학년
 강은정_은행고 2학년



대상



[새우개 장승놀이] 성다솜_장곡고 1학년

최우수상



[군자봉 성황제] 김수아_은계초 4학년

최우수상



[군자봉 성황제] 길태연_대흥중 1학년

최우수상



민지혜_은행고 2학년

우수상



정희진_은계중 2학년

우수상



[강희맹 선생 사당] 이지아_시흥초 4학년

우수상



[월미두레풍물놀이] 김희원_시흥은행초 1학년

우수상



강은정_은행고 2학년



학생 글짓기 공모전

- 대상 김동균 _ 은계중 1학년
- 최우수상 박수빈 _ 시흥 도원초 6학년
김남애 _ 소래고 2학년
김예림 _ 은계중 1학년
- 우수상 강서연 _ 소래고 2학년
박나겸 _ 은계중 2학년
박지우 _ 진말초 6학년
이영주 _ 하중초 3학년





하늘도 감동시킨 효자 하우명

은계중학교 1학년 1반 김동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온기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식지 않는 '사랑' 일 것이다. 그리고 이름만으로도 모두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은 부모님의 자식 사랑일 것이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나 또한 내가 누리는 지금의 환경과 부모님의 사랑을 무조건이라고 받아들이며 감사함을 잊을 때도 많고 가끔은 적지 않은 투정으로 부모님을 걱정시키드리기도 한다. 효행이 마땅한 행동임을 배워가면서도 그저 전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실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던 중 내가 살고 있는 시흥시의 유적지를 조사하다가 하우명 선생님의 효행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효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우명 효자 정각은 시흥시 향토유적 제11호로 지정되어 신천동 422번지에서 볼 수 있다. 조선전기의 효자 하우명(1413~1493)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정각으로 하우명 선생님은 영의정을 지낸 하연의 3남으로 태어났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으며 노모를 위해 아침저녁으로 항상 손수 조리한 찬으로만 상을 올렸다고 한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자 선생은 너무나 애통하고 상심하여 초췌하기 그지없었으나 제사상은 반드시 손수 마련하였으며 3년 동안 시묘살이를 마치고도 어머니를 추모하는 마음이 지극하여 영당을 세우고 철에 따라 새로운 제사 음식을 마련하여 제사를 모셨다.

지방관이 그의 효행을 상신하여 나라에서 정각을 세우고 호역을 면해주었으며 그 뜻을 후대에까지 전하기 위해 몇 번의 보수를 거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선생님의 효행은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행동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높

이 평가되기 위해 지극한 효성을 행한 것도 아니었다. 부모를 섬길 수 없다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소중하게 키워준 부모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보답하려고 했다. 선생의 아버지가 70이 넘어 어린아이처럼 치매가 왔을 때에는 아버지의 친구처럼 노래도 불러드리고,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어 매를 때렸을 때에는 그 매도 즐겁게 맞았다고 한다.

효는 우리의 오랜 전통이고 아름다운 덕이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사람됨의 기준으로 효를 으뜸으로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인륜을 어기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인륜적인 범죄, 형제끼리 재산 때문에 다툼을 하고 서로를 다치게 하는 일들, 갖고 싶은 것을 먼저 갖고 부모님보다 먼저 누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효는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고 받은 사랑을 다시 건네 드리는 자식의 사랑이다. 스스로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다면 자손에게도 효도를 강요

하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효경에 이런 말이 있다. ‘아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타인을 공경하는 것은 어긋난 예의다.’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는 함부로 하면서 다른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인정받는 것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이다. 하우명 선생님처럼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님을 대하지 못하더라도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밖에서 인정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에 세워져 있는 하우명 선생님의 효자 정각이 시흥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나도 부모님이 건네주시는 사랑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도 부모님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생각할 것이다.

하우명 효자 정각



최우수상

천년의 숨결을 천년 후까지

시흥도원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수빈

소래산은 유치원 때부터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다니던 곳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우리학교가 '소래산 지킴이 학교'가 되면서 더욱 자주 다녔는데, 그때마다 거대한 돌 벽에 새겨진 불상이 신기하기만 했었다. 2001년에 마애불상이 '국가보물 1324호'로 지정되었다. 크기와 규모를 보아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고나니 내가 시흥시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그런데 마애불상 앞에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어놓은 허름한 천막과 커다란 제단이 있었고 수를 세기도 힘든 촛불에서 촛농이 녹아 흘러 지지분하기까지 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마애상을 보기위해 찾아갔던 나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엄마와 나는 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시민 게시판에 소래산 마애상에 대한 항의 글을 올리려 하였는데 시청 게시판에는 이미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있는 어른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고, 시흥시청 문화담당과 직원의 답변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었다. 시흥시와 경기도, 문화재청과 합동으로 소래산 마애상 주변 경관 정비사업계획이 되어있고, 현재는 문화재청의 설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였다. 그래서 이제 곧 멋진 마애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었다.

고학년이 되면서는 소래산에 자주가지 못해서 그때의 일을 잊고 있다가 작년(5학년 때) 여름에 오랜만에 소래산을 가보았는데 역시나 몇 년 전 모습 그대로인 것을 보고 속상한 마음을 안고 내려왔었다. 우리 시에는 문화재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나보다는 말을 마애상 옆에서 안타까워하던 어른들에게 들었다.

그리고 올 여름, 소래산 마애상 앞이 정리된 것을 보고 정말 기뻐다. 지저분한 천막도 없어지고 보기 흉하게 마애상 관람을 방해하던 콘크리트 제단도 없어지고 주변이 깨끗해진 것을 보니 내 마음도 깨끗해진 느낌이였다. 한 가지 더 바란다면 거대한 마애상은 항상 밑에서만 볼 수 있는데 전체모습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생겼으면 좋겠다. 등산로가 좁은 곳이라 전망대를 세울 곳이 적당하진 않지만 첩탐 등을 이용한다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2주전 소래산을 다녀온 엄마가 마애상 앞에 수능을 기원하느라 촛불켜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소래산 마애상이 수능시험을 잘 보게 하는 힘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켜고 남은 초들을 기도하던 분들이 모두 가져갔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마애상 앞이 깨끗이 정비되는 데는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루아침에 보기 흉하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마애상의 보호를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없이 관리하는 곳에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게는 소래산 마애상을 후대에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천년 전의 숨결이 천년 후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소래산 마애상

최우수상

조화의 미가 있는 곳

소래고등학교 2학년 12반 김남애

소래산에 갔다.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소래산에 처음 온 것이었다. '예전에는 산에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산에 갈 여유조차 없어진 것일까?'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더 산에 가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씩씩했다.

소래산은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겨울이 슬금슬금 다가와서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대신 낙엽들이 곱게 가루가 된 채 등산로 위에 소복이 쌓여 있었고 공기는 약간 쌀쌀했지만 은은히 섞여오는 그 특유의 소나무 향은 여전히 상쾌했다. 곳곳의 운동기구, 의자, 표지판, 약수 그리고 지저귀는 새들은 예전과 변함없이 산을 이루고 있었고, 나도 예전과 변함없이 산의 경치, 향기, 감촉을 느끼며 점점 깊숙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렇게 산에 취해 올라가던 중, 마애상까지 오게 되었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집을 지어도 자연과 어울릴 수 있게 지었고 또한 그들의 작품에는 자연과 동화하고자 하는 소망이 주로 보인다. 그리고 옛 조상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나도 각각의 다른 특성들이 서로 어울려서 더 큰 아름다움을 내는 그런 조화를 가장 큰 아름다움이라고 여긴다.

마애상에도 그런 아름다움이 보인다. 마애상은 바위에 새겨진 그림 자체로도 선 하나하나에서 보여지는 섬세함과 전체적으로 풍기는 우아함이 깃들여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변의 풍경이랑 어울려서 더욱 절정을 이룬다. 마애상 주변에는 각종 나무나 풀이 자라고 있다. 그런데 나무들은 마애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을 감상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면에 있지 않고 구석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바위의 색과는 다른 푸른색으로 주위를 물들인다. 즉 바위 하나만 있을 때의 밋밋함을 주변 풍경이 좀 더

다채롭게 꾸며주어 마애상을 좀 더 완성도 있게하는 효과를 자아내게 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소풍나온 다람쥐가 마애상을 찾아온다면 조화의 미가 더욱 배가될 것이다. 또한 마애상이 산속에 있어



소래산

서 더 좋은 점은 마애상을 감상하면서 산이 제공해주는 것들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서술했지만, 나는 소래산에 오르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상쾌한 공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마애상이 산 중간에 있으므로 인해 자연스럽게 산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을 그대로 느낀 채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일석이조라는 말은 이런 상황에 쓰는 말인 것 같다. 아마도 옛날 조상들은 이런 조화의 장점을 알고 마애상을 제작한 것이 아닐까?

그 밖에 마애상을 보면서 다른 것들도 느꼈는데, 고려시대에 저렇게 큰 것을 새길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 오랜 세월동안 풍화가 많이 된 것 같은데 5mm 정도 새겨진 그림이 점점 망가질 것 같다는 걱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마애상을 소정방의 군대가 만든 줄 알고 있었던, 어찌 보면 문화재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한 반성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다.

산을 내려오는 것도 올라올 때와 같이 기분이 상쾌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경치를 둘러보았다. 그러면서 마애상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다. 마애상 하나라도 수려한 미가 있지만, 산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더욱 아름다운 마애상. 그것이 내 고장 시흥에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최우수상

새우개 장승놀이

은계중학교 1학년 5반 김예림

어느 덧 11월이 되어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내가 관곡지에 새우개 장승놀이를 보러 갔을 때에는 매미의 정겨운 노래소리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기 일쑤였는데 말이다. 시간은 역시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새우개 장승놀이는 고려말엽부터 이어져 왔다. 마을사람들의 풍요,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 놀이는 해마다 길일을 택해 정하고, 7월초에는 우물고사를 지낸다. 당집을 기준으로 동쪽마을과 서쪽마을로 나뉜다. 내가 동쪽마을에 갔을 때 동방축취대장군이라는 장승이 나를 무섭게 내려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일이 계속 생각나서 부끄러웠다. 서편마을의 북방축취대장군 역시 학미산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 학미산을 지키는 씩씩한 장군처럼 보였다. 이 장승들은 새우개 마을의 수호신으로 나쁜 액을 막아준다고 한다. 한참 마을을 구경하고 있는 내 눈에 웅장한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보였는데 그 나무사이에 당집도 있었다. 이 두 나무 역시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나무라고 한다. 웅장하고 큰 키만큼 마을사람들과의 인연이 깊고 각별한 듯이 보였다.



새우개 장승놀이를 시작하는데 먼저 농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고 제례를 했다. 그 후 각자 장승을 세우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이 다함께 정겹게 춤을 추었다. 그냥 우연히 관곡지에 들렀다가 온 것이라 새우개 장승놀이에 대해 들은 것도, 아는 것도 없는 나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그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마을사람들끼리 마치 형제처럼 친해보였고, 차가운 표정을 했던 장승들이 그들을 향해 웃는 것처럼 보였다. 사실 마지막에 마을사람들

끼리 춤을 추는 것은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형성시키고 어려운 일에 대처하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일이었던지라, 매우 중요했다. 춤을 출 때만큼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다. 놀이가 끝나고 잠시 쉬는데, 새우개 장승놀이에 참가하신 분으로부터 새우개 장승놀이에 대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래 새우개 마을은 해안마을이었는데 염전 확장으로 인해 농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어업에 관련되어 있던 새우개 장승놀이는 사라지게 되었지만, 마을사람들이 장승을 세워 다시 그 놀이를 추진하였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다. 만약 새우개 마을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영 새우개 장승놀이를 못 봤을 수도 있다. 물론 수호신이었던 장승 역시도 잊게 되었을 것이다. 장승들이 새우개 마을을 지키는 이유는 어찌면 마을사람들의 순수함과 자신을 잊지 않아준 고마움 때문일 수도 있다.

새우개 장승놀이를 보고 나는 새우개 마을 사람들과 장승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인연은 참 깊고 특별하기 때문이다. 또 항상 서로를 지켜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이다. 훗날에는 새우개 마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장승을 위한 놀이를 했으면 좋겠다.



시흥시 향토유적 제8호 관곡지

우수상

시흥사랑, 작은 참여로부터

소래고등학교 2학년 10반 강서연

며칠 전 하교 길에 강희맹선생님의 '독조도'를 찾기 서명운동하는 것을 보았다. 정확한 내용을 몰랐지만 시흥을 위한,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여 나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다. 서명을 한 이후에 정확히 어떤 것에 관련된 캠페인인가, 강희맹선생님이 시흥과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겨 좀 더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다.

조선전기의 문신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이신 강희맹선생님은 시흥과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시다. 강희맹선생님은 관직에서 물러나 시흥으로 내려왔다. 강희맹선생님은 시흥에서 생을 마감 하셨고 선생님의 묘는 하상동 산 2번지에 소재해 있다. 선생님의 묘와 선생님의 업적이 쓰여 있는 신도비는 경기도기념물 87호이다. 또한 7~8월이 되면 연꽃을 보러 가는 시흥시 하상동에 위치한 관곡지는 선생님이 연꽃씨를 처음 심어 생겨난 곳이며 그곳은 향토유적 제8호로 지정된 시흥시의 큰 자랑거리로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붐빈다. 이러한 선생님과 깊은 인연 때문에 시흥시는 "강가의 말라 죽은 나무 두 그루 아래 배에 앉아, 강 너머를 응시하고 있는 고사를 묘사"한 그림인 강희맹선생님의 '독조도'를 되찾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독조도'는 일제치하 한국문화재 수탈의 거물이라 불리는 오쿠라 타케노스케에 의하여 일본에 수탈되어졌다. '독조도'를 수탈해간 오쿠라 다케노스케는 일본이 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하자 자신이 수집한 1000여 점의 한국 유물들을 싣고 본국으로 귀향해 오쿠라 컬렉션 보존회를 설립하게 된다. 이후 오쿠라 컬렉션의 유물들은 도쿄 국립박물관에 기증되는데, 이때 기증된 유물 가운데 하나가 '독조도'이다. 이렇듯 허무하게 빼앗긴 우리 문화재는 세계 각국에서 7만 4천여



점이거나 되며, 유출되었던 문화재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환수되는 경로는 정부의 협상을 통해서, 외국정부의 기증, 민간인들의 기증 등을 통해 환수된다. 이렇듯 우리 시흥시민도 서명운동을 벌여 일본으로부터 '독조도'를 되찾아 오려는 것이며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아직 문화재를 환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화재들이 환수되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 정부의 환수 노력 부족, 여러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의 환수 예산 부족, 국민들의 무관심 등 문화재를 반환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외국정부와 마찰을 겪지 않고 환수 받고 국제사회에서 더 크고 넓은 문화협력을 이루어 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재를 환수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문화재란 우리선조들의 혼과 열이 담긴 뜻 깊은 우리 역사이다.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갖춘 정신유산이고 역사와 문화의 결정체인 만큼 그 역사를 가진 나라에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화재를 다시 되찾아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다시 되



강희맹 선생 신도비

새기며 우리나라의 긍지를 높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강희맹선생님의 '독조도' 역시 시흥시민의 관심으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강희맹선생님은 시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시흥의 역사와 문화발전을 위해, 시흥시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 '독조도'를 되찾아야 한다. 또 최근 안산시를 중심으로한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논의로 인하여 우리 시흥시에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는 지금 문화재 환수운동을 통한 시흥시민의 단합된 모습은 건전한 지자체로서 시흥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시흥문화원의 '독조도' 되찾기 시민운동은 우리 시흥시민에게는 강희맹선생님이 갖추었던 덕과 정신을 받들어 올바른 시민상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느 도시 보다 앞선 선진도시인 시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따뜻한 축제

은계중학교 2학년 10반 박나겸

내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는 '그들의 문화를 가장 잘 알기 위한 방법은 그들의 축제에 참가해 보는 것'이라는 글귀를 본적이 있다.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열정과 삶이 보인다. 라는 의미다.

시흥시에는 많은 축제가 있다. 매주 토요일마다 토로길과 해로길 사이에서 열리는 『쿨존』 축제는 주말이면 즐길 곳이 없어서 타 지역 멀리까지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준다. 게다가 청소년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교육과 정신건강에 대하여 강의와 연극공연을 무료로 해주고 있다. 지난번에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 라는 연극을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요즘엔 거의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느낌이 달랐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연습해 그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무대도 있다. 이런 경험들은 공부에 치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우리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좋은 계기가 된다.

또한 비둘기공원에서는 많은 공연과 음악회를 접할 수 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있었는데, 수업중이라 가서 볼 순 없었지만, 내가 사는 가까운 곳에서 큰 축제가 벌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평소에는 시민들이 나와서 공연을 한다. 몇 주 전에 여기서 열리는 한국전통음악회에 아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일반 가정 주부의 사물놀이였다. 적지 않은 나이에 꿈과 열정으로 짬짬이 시간을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그분들의 용기와 노력은 내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꼭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바로 옛장수 아줌마와 아저씨이다. 우스운 분장에 현란한 손동작과 즐거운 리듬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흥이 난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 주위엔 사람이 몰려 있으며, 가끔은 무대 위의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기도 한다.



연성문화제

그리고 이곳에서 열리는 빼놓을 수 없는 큰 축제가 또 있다. 물왕예술제는 물왕저수지에서 이름을 따와 1993년 부터 매년 5월에 열린다. 이 축제는 예쁜 이름만큼이나 참가한 사람들의 마음 또한 예쁘다. 돈이 드는 축제가 아니라 정말 시흥시민 또는 외지인이라도 누구나 나들이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시흥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을 뽐낼 수 있고, 관람하는 사람 또한 기쁨과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넣어 준다. 이 축제는 생각보다 꽤 큰 행복을 한아름 안겨다 준다. 이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불꽃놀이이다. 소리가 커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 정말 볼거리는 환하게 피어나는 불꽃만큼이나 환하게 피어나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웃음꽃이다. 이런 모습들이 내가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만드는 더 큰 이유이다.

시흥시의 축제에 참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가해 보았다면 무엇을 느낄 수 있었습니까? 전 그곳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공연 중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키가 작은 어린이를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 어린이들에게 엽을 하나씩 물려주는 엽장수 아저씨 등 이곳의 분위기는 매우 따뜻합니다. 각박하고 이기적인 현실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정감어린 손길로 다가오는 시흥의 축제 한마당으로 모두 나와 따뜻한 축제에 참가해 보자.

우수상

소래산에 반한 초보 등산 가족

진말초등학교 6학년 협동반 박지우

“헉헉, 휴~” “와! 정상이다! 야호” 몇 해 전부터 우리가족은 봄, 가을 이렇게 일 년에 두 번 소래산으로 가족 등산을 간다.

“준배, 지우 준비됐지?” 아빠의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간식을 넣은 배낭을 메고 얼린 물, 운동화를 신으면 등산 준비 완료. 이제 소래산으로 출발! 우리 가족은 등산을 아주 좋아하는 등산 매니아는 아니다. 가끔 봄이 시작되는 3월,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우리가족은 아빠의 부탁 반, 강요 반으로 집에서 가까운 소래산을 찾는다. 2학기가 시작하고 토요일 이번에도 아빠는 소래산에 가자고 하셨다. 항상 처음에는 망설이게 된다. ‘아휴~’ 저 높은 곳까지 언제 올라가나…….

쉬고 또 쉬고 조금만 올라가도 숨을 헉헉거리며 아빠와 준배 뒤를 따라 올라갔다. 아직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도 못하고 나는 계속 쉬었다 가자고 했다. 산 가장자리에 놓인 의자에 앉아 싸운 빵과 물을 마시니 좀 살 것 같았다. “많이 쉬었으니 빨리 가자!” 역시 팔팔한 준배는 힘들지도 않은지 빨리 올라가자고 재촉했다. 처음 올라올 때보다 걸음걸이가 더 빨라진 것 같았다. 그렇게 준배를 따라 열심히 산을 올랐다. 소래산은 참 재미있다. 가파른 곳을 힘들게 올라가다보면 그 안에 작은 내리막길이 있어 힘든 것을 잠시 잊게 해준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에버랜드 독수리요새 같다.

봄과 가을의 소래산은 같은 산이지만 그 느낌이 조금 다르다. 봄에는 산 속이라 아직 추운데 그 추위를 이기고 자라는 파릇파릇한 풀과 나무의 향긋한 냄새가 상쾌한 기분을 들게 한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소래산에 오르면 조금은 춥고 무서운 느낌이 들지만 금방 가을산이 즐거워진다. 예쁜 단풍이 들진



않았지만, '부스럭, 부스럭' 작은 청설모와 다람쥐들이 겨울에 먹을 도토리과 밤을 줍느라 여기저기서 소리를 낸다. 준비와 나는 살금살금 청설모를 따라 다녔다. 가지고 온 과자도 던져주고 숨어서 지켜봤다. 청설모는 얼른 과자를 가지고 나무 위로 도망가 버렸다. 청설모와 놀면서 올라가다 보니 벌써 마애불상 앞에 도착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커다란 바위 앞에 서서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상의 모양을 찾았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 모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저렇게 커다란 불상을 새겨놓았다니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마애불상 조각 옆에 큰 현수막이 붙어있었다. '어, 저게 뭐지? 행사 안내문인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 현수막 앞으로 가니, 아니! 누가 일부러 소래산 마애불상 주변 소나무들의 밑동을 모두 잘라 놓았다는 것이었다. 몇 백 년 동안 이 불상과 함께 지냈을 소나무인데. 그 소나무를 왜 아무 이유 없이 상처를 냈는지 소나무가 너무 불쌍했다. 속상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우리가족은 다시 산을 올랐다. 가다보니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왔다. 아! 드디어 정상에 다 온 건가? 신나는 마음에 빛의 속도로 달려가 우리가



족 중 일등으로 정상에 도착했다.

“아빠, 엄마, 준비 빨리 올라와!” “야호~” 소래산에서 내려다보니 시흥이 한 눈에 보였다. 정상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시흥을 내려다보니 기분이 상쾌했다. ‘아,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상에 오르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정상 위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땐!

정상에서 먹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지! 맛있는 캔디바 아이스크림을 입 안에 딱 넣으면 혀바닥에 착 달라붙고 거기에 침을 좀 묻히면 입 안에서 살살 녹는 환상의 맛! 아이스크림도 먹고

정상 위에 올라온 기념으로 찰칵! 사진도 찍었다. 어느새 내려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그래도 올라오는 것보다 더 신나게 미끄럼을 타며 내려왔다. 난 우리 시흥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힘을 주는 훌륭한 소래산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최고의 매력을 가진 우리의 소래산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년 봄에 다시 소래산을 오를 때는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올라서 시원한 아이스크림도 다시 먹어야지.

우리를 다시 볼 때 까지 소래산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있으렴!

장유 선생의 묘를 찾아서

하중초등학교 3학년 3반 이영주

얼마 전 여름방학 숙제로 우리고장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시흥의 문화 유산지를 직접 찾아다녔는데 여름이라 날씨도 많이 덥고 땀이 나서 힘들었지만 고장을 알아 간다는 생각에 오히려 힘이 불끈 솟았다. 그 중에 장유선생 묘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우리 고장에서 지정한 문화재 입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제대로 된 안내판이나 표지판도 없어서 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모른다. 게다가 주변에 공장들이 있어서 아이들끼리 탐사하기는 위험한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랑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며 엄마 손을 꼭 잡고 걷기 시작했다. 묘 주변 길에는 풀이 많이 자라서 길도 나 있지 않았고,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었다. 구두를 신은 우리엄마는 푹푹 빠지는 구두 굽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내가 만약 우리 시흥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게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문화재 주변의 지저분한 풀도 잘 정리해 둘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곧 도착한 장유선생의 신도비를 받치고 있는 거대한 거북이가 나의 눈에 들어왔다. 그 묘를 지키듯이 사람모양의 돌들이 서 있었다. 정말 멋있었다. 무덤의 크기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컸다. 웅장한 모습에 마음이 차분해졌다. 장유선생은 맑고 성격이 곧

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무덤도 크고 멋있는가보다. 신도비를 바라보며 그동안 시흥의 문화, 역사에 대해서 알고도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묘를 보는 것만으로도 무서웠는데 장유선생의 신도비에 와보니 무서운 생각보다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돛자리를 가지고 와서 쉬고 싶을 정도로 아늑한 느낌이었다. 왜 일까? 우리고장에 함께 사셨던 분이래 친근감이 느껴졌는지도 모르겠다.

조사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이곳에 사시는 분을 만났다. 그분께서는 묘 주변에 문화재 지정을 받지 못한 유적이 많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시흥시 유적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하셨다.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장유선생과 같이 훌륭한 분이 계셨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고장을 더 많이 탐구하여 조상의 슬기와 지혜를 더욱 더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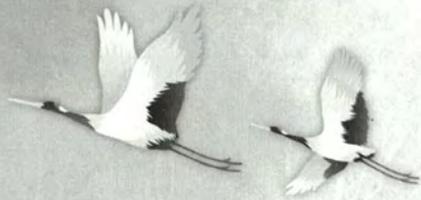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우리고장의 문화유산에 관심을 더욱더 가지며 학교에서 우리고장 알리기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학교에서도 현장학습을 시흥역사 문화재로 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우선 나부터 시흥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키우기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소중한 나의 고장 시흥이니까.



산채

■ 늪내길을 아시나요?





글 | 홍승철기자 · 사진 | 시흥문화원

늪내길을 아시나요?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다면 시흥시에는 늪내길이 있다. 늪내길은 시민들의 건강과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늪내의 유래는 한강유역 인근에 자리한 입지 조건으로 삼국시대에는 지배국이 계속해서 바뀌는 운명을 겪은 현재의 시흥시다. 백제의 영토였던 이곳은 고구려 장수왕 때 주인이 바뀌면서 잉벌노란 이름을 얻게 됐다. '뺨어 나가는 땅'이라는 의미를 지닌 잉벌노의 당시 표현이 '늪내'다.

또 늪내에는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생명도시 시흥시의 늪름한 기상과 은근하게 뿜어내는 아름다운 자연의 향내가 묻어나는 도시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늬내 숲길

산자락과 산지락을 이어 만든 길로 높진 않지만 숲과 나무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산봉우리들을 넘나들며 이어지는 늬내 숲길은 삼림욕과 사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식물의 다양함과 자연부락을 조망하며 걷는 길이 이어지고 문화유적과 함께 고장의 숨은 역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열정과 느낌의 미학과 쉬어가는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산봉우리들을 넘나들며 이어지는 등산로 겸 산책로다.

가족단위 등산이나 산책로로 최적의 코스를 갖고 있는 숲길은 시청을 출발해 군자봉, 진덕사, 선사유적공원을 거쳐 시청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길이가 13Km이며, 완주까지는 5~6 시간 소요된다.

늬내 숲길을 걷다보면 조선시대 6대 임금인 단종이 현덕왕후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다가 이 산의 생김이 마치 연꽃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 지어진 군자봉과 향토유적지인 석조약사불상이 있는 진덕사를 지나게 되며 코스가 끝날 무렵 선사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숲길을 걷는 등산객은 숲이 주는 맑은 공기와 여기저기 화려한 산 자락을 보면서 피곤함도 잊어지는 코스다.

옥녀봉

아득한 옛날 옥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산 밑에 있는 삼신우물에서 목욕을 했다는 전설을 지닌 곳으로 리기다 소나무와 참나무, 아까시들이 관목류와 어우러져 있는 아기자기한 산이다. 산길에서 고깔제비, 각시붓꽃, 애기똥풀, 칩떡굴, 황매화, 무릇 등 다양한 야생화를 볼 수 있고 은근하게 뿜어져 나오는 솔향을 맡으며 걸을 수 있는 곳이다.

작고개

옥녀봉과 군자봉 사이의 고갯길로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도 이 고개를 넘어려면 말굽이 붙어 반드시 내려서 걸어야 했다는 전설이 있다. 고개 마루에서 시원한 바람과 나무의 흔들림을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가래골 약수터

농기구인 가래를 닮은 형상의 농경지를 앞에 둔 가래골 약수터는 가을단풍이 특히 아름다운 곳이다. 주변에 자작나무, 팔배나무, 참나무류가 곱고루 분포되어 있다.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약수가 등산객들의 목을 축여주고 지친 다리를 쉬어가게 만드는 곳이다.

늬내 숲길에서 만나는 친구들~♥

애기똥풀

마을근처 양지 바른 곳이라면 어디서든 쉽게 만나지만 길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군락지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큰나무 아래에서 노란 꽃을 5~8월까지 피워내는 애기똥풀은 줄기나 잎을 자르면 노란색 즙액이 나온다.

침

흔히 침을 떠올리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덩굴과 쓴맛의 결정체인 침즙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숲에서 만나는 침의 모습은 다양하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담아 여름 내 피워내는 보랏빛 꽃송이.

등산로에서 만나는 칩꽃은 보기도 좋다.

왕고들빼기

국화가 아니면서 국화처럼 보인다. 키는 생각보다 크다. 여름의 끝자락을 접고 피워내는 꽃은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산딸기

발걸음을 옮기기에 조금하면서 좀처럼 얼굴을 구경하기 힘든 친구다.

수줍은 듯 잎으로 모습을 감추고 있는 빨간 열매들을 만나면 절로 손길을 보내게 된다.



늬내 숲길에서 만나는 친구들~♥

고깔 제비꽃

공원이나 아파트에서 쉽게 만나는 제비꽃. 그 잎사귀가 대부분 타원형의 길쭉한 모양인데 비해 잎의 밑부분 가장자리가 말려있어 마치 머리에 쓰는 고깔모자를 닮은 고깔제비꽃. 숲길에 들어서면 언덕길에 이들의 군락지가 있다.

무릇

자잘한 연분홍색 꽃이 사이좋게 모여 키를 키워낸 무릇은 숲길을 따라 이어진다. 때로는 모여서 때로는 홀로 피어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무릇은 나비와 잠자리의 친구다.

가래울

자연부락의 형태를 지닌 가래울에는 100여년 나이를 가능하게 하는 향나무 아래, 달고 시원한 약수가 넘치는 우물이 있다. 인근에는 과수원과 미나리 단지가 있어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직판장이 있다.

진덕사 산책길

능곡동에 소재한 진덕사는 고려시대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울창한 숲과 아름다리 수목을 지닌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 만나게 되는 진덕사에는 향토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석조약사불 좌상이 있다. 양손을 중앙으로 가지런히 모아 약병을 들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지닌 약사불의 영허함이 절을 찾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오고 있다.

또, 다른 사찰과 달리 소소한 멋을 간직하고 있으며 길가에 큰 나무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멋진 산책길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선사유적공원

선사시대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선사유적공원은 능곡지구에 위치해 있다. 신석기 수혈주거지 26기, 청동기 주거지 6기, 수혈유구 2기, 석실묘 등 기타 유구 141기 등이 발굴돼 현재 현상보존을 위해 선사유적공원으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선사시대 집단취락지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원형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주거지역과 인접해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생태공원 초입(갯골길)

늪내갯골길

2009년 10월 31일 개장한 늪내 갯골길은 경기도 유일의 내만 갯골과 옛 염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멸종2급, 보호1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다.

갯골과 연안습지 자연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며 석양빛을 흠뻑 먹은 갈대와 억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길이다.

옛 염전의 풍광을 누리면서 구불구불한 갯고랑을 따라 걷는 늪내 갯골길은 시흥시청을 출발, 갯골생태공원-섬산-방산대교-포동-빛물뽕프장-갈대밭-을 지나 시흥시청으로 되돌아 오는 총 16.9Km, 4시간 30분이 소요되는 코스다.

갯골길에서는 옛 염전의 정취를 느끼고 붉은빛 염생 식물과 가을 바람을 이겨내는 갈대들이 만들어 내는 멋진 장관을 볼수 있다.

늪내 갯골길에서 만나는
친구들~♥

칠면초

일년에 일곱 번 색깔이 변해 칠면초라 한다. 염전에서 흔히 보이는 한해살이풀로 즐기는 가지가 갈라지며 딱딱하다.

어긋나기를 한 잎은 선형으로 끝이 뾰족하나 통통한 다육질이다. 잎 겨드랑이에 피는 녹색 꽃은 점차 자주색으로 변한다.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를 한약재로 쓰는데 해열 효과가 있다.

늪내 갯골길에서 만나는 친구들~♥

나문재

줄기에 촘촘히 어긋나는 잎은 좁은 선형이다. 짧은 꽃자루가 있는 자잘한 황록색 꽃이 달린다. 맨 윗부분은 잎이 수없이 수상꽃차례처럼 보인다. 어린잎은 나물로 먹는다. 아주 진한 검은색 씨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 사람들이 먹거나 비료로 쓰기도 한다.

통통마디

산림청에서 희귀식물로 지정한 모세달은 여러해살이 풀이다. 뿌리가 굵고 옆으로 길게 뻗어 번식한다. 줄기는 곧다. 잎은 편평한 줄 풀이며 가장자리에 잔털이 있다. 꽃차례에 털이 없다. 잎은 억새와 닮은 풀이다.

갈대

습지 정화 작용을 하는 갈대는 습지나 냇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수염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갈대의 속은 비어 있다. 털이 달린 씨앗이 바람을 타고 퍼진다. 겨울이면 가냘픈 몸체 위에 눈송이를 듬뿍 담고 서 있기도 하고 바람을 온 몸으로 받아낸다.

억새

가을이면 산과 들판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억새는 높이 1~2m로 뿌리줄기는 모여나고 굵으며 원기둥 모양이다. 꽃은 9월에 줄기 끝에 부채꼴이나 산방꽃차례로 달리며 작은 이삭이 촘촘히 달린다.

또 수변 식물과 계절마다 길가에 핀 꽃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자전거 마니아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현재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갯골생태 공원은 자연생태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하고 학습하는 공간으로 2012년 완공되면 국내 최고의 생태체험 명소로 자리매김 하게 된다.

갯골길을 따라 걷다보면 농계, 방계, 통통마디, 칠면초 등 갯벌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오면 훌륭한 자연학습장이 된다.

향후 시흥시는 낭만적인 바다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해안길, 논과 어우러진 수로를 따라 사시사철 색다름을 담아내는 물길, 저수지와 더불어 드넓게 펼쳐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보는 들길 등 테마가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늪내길 찾아가기

- 지하철 지하철 1호선 이용: 소사역 1-1 마을버스 시흥시청 하차
지하철 4호선 이용: 안산역 30-7, 61 시흥시청 하차
- 버 스 시내버스: 11-2, 25, 30-7, 32, 61, 63
좌석버스: 1, 3200 / 마을버스: 1-1
- 자가용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장현동 300번지) 시흥시청
- 문의전화 시흥시청 공원관리과 310-24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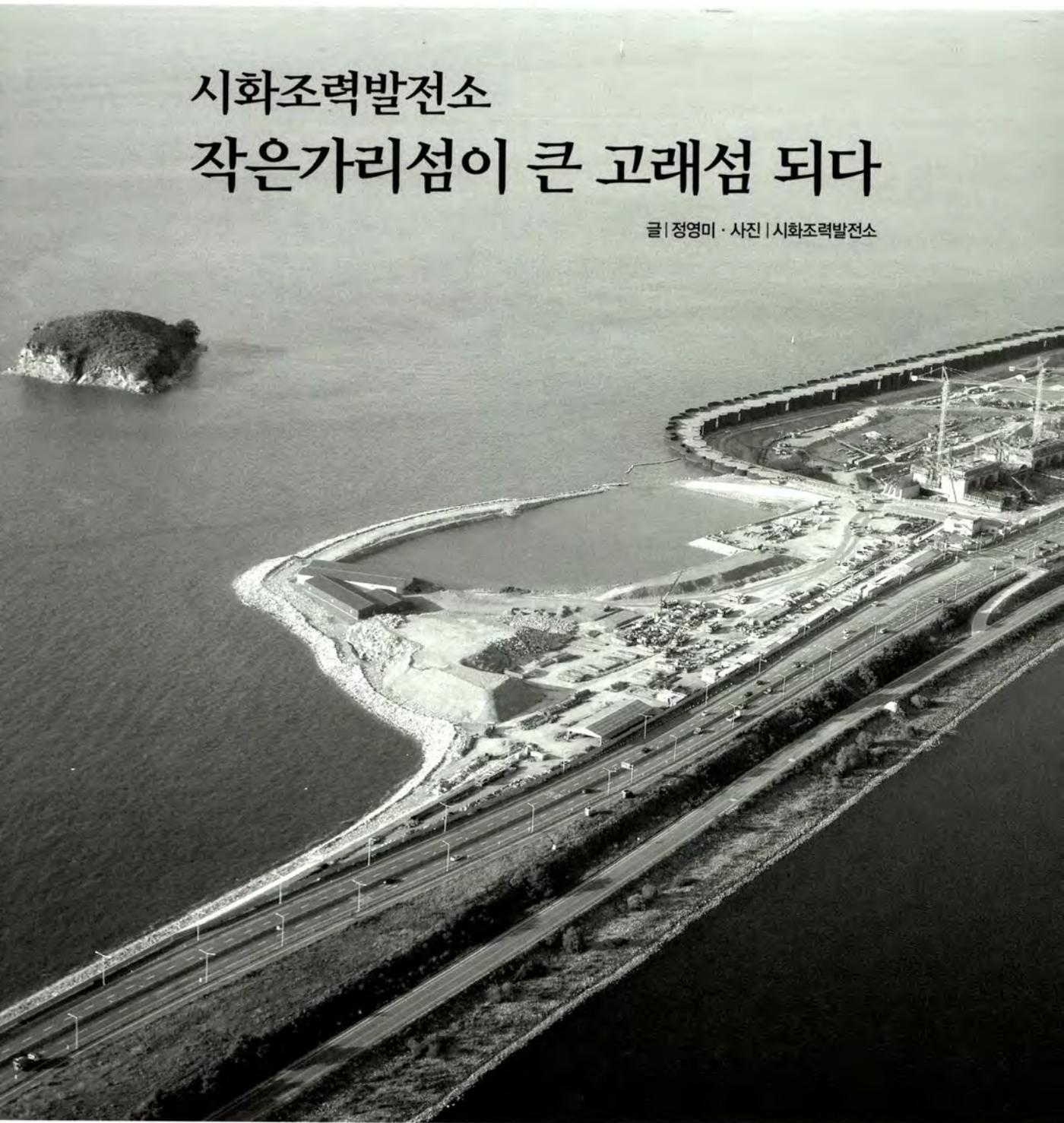
시흥리포트

■ 시화 조력발전소



시화조력발전소 작은가리섬이 큰 고래섬 되다

글 | 정영미 · 사진 | 시화조력발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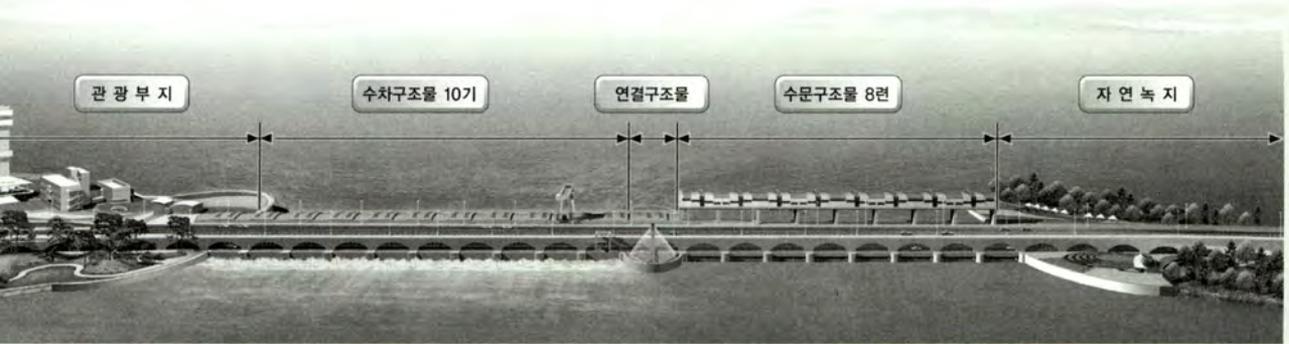
시흥의 오이도와 시화공단에서 대부분을 잇는 12km 시화방조제 한복판 작은가리섬에 세계최대 규모의 “시화조력발전소”가 설치되고 있다.

국내 최초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인 ‘시화조력발전소’는 사업비 3천 551억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발전시설용량 25만 4천kw(수차 10기), 배수갑문 8문(15.3m×12m)으로 연간 발전량 5억 5천 2백만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대 청정에너지 발전시설로, 이는 인구 50만 규모의 도시에 공급 가능한 양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86만 2천배럴(287억원)의 유류 수입 대체 효과와 연간 31만 5천톤의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것은 소나무 6만 8천 그루를 심은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체에너지 개발로 인한 에너지 자급도도 향상되며 청정에너지 개발을 통한 대기환경오염 저감 등의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해양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역할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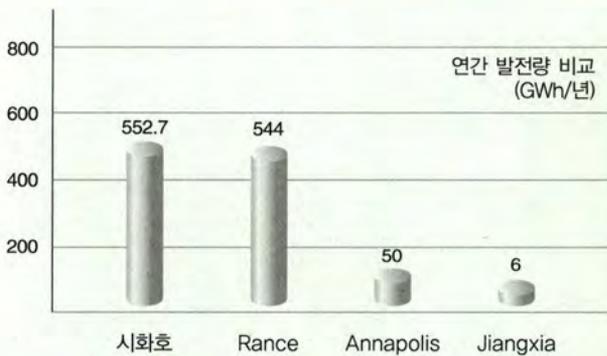
조력발전의 원리는 간단해서 바닷물이 가장 높이 올라왔을 때 물을 가두었다가 물이 빠지는 힘을 이용해 발전기를 돌리는 것으로, 밀물 때 수문을 닫아 두었다가 문을 열면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터빈을 돌려 발전하게 된다.

시화호 조력발전은 단류식 창조발전으로 최고 9.16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밀물 때 시화호 바깥쪽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화호로 유입되는 하루 두차례(약 10시간) 물의 압력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으면 유효낙차가 적어 이용할 수 없고, 1년을 통한 평균조차가 7m 이상 필요하므로 세계적으로도 한정된 지역에서만 조력발전이 가능하다.



■ 세계의 조력발전소 현황

발전소명	시화호	Rance(프랑스)	Annapolis(캐나다)	Jiangxia(중국)
시설용량(MW)	254	240	20	3.9
최대조차(m)	9.16	13.5	8.7	8.39
발전방식	단류식(창조식)	복류식	단류식	복류식
발전개시년도	2010 예정	1967	1984	1980



현재 캐나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조력발전소를 건설해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조력발전이 가능한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호주, 인도 등의 국가에서도 조사 작업이 한창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는 특히, 경기만 일대인 서해의 인천만, 아산만, 가로림만, 천수만 등은 세계적으로 드문 조력발전의 최적지로 이런 곳을 이용하여 조력발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 수력발전의 발전량 보다 현저히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시화조력발전소의 초기 건립 목표는 시화호의 수질 개선이었다. 그러나 수질 개선과 더불어, 전력 생산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청정에너지원으로 자연의 힘인 조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무한 재생이 가능한 전력을 생산하게 되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화호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개발사업 주의 의도와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부터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 시켰다.

당시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는 시화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0년 시화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의 오염된 수질 개선 및 조력발전소 건설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2004년 12월 30일 그 첫 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80% 정도 진행된 상태로 2010년 완공 예정이다.

시화조력발전소의 준공으로 또 하나의 변화는 발전소와 더불어 66,000m²의 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 관광단지는 발전소에서 나온 흙을 이용해 건설하며, 이 곳에는 자연생태 체험 테마 공간을 비롯해 각종 문화 예술 공간, 레크레이션 활동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완공 후 연간 11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시흥시 주변 지역인 오이도를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막대한 관광수입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 속에 시흥시 특유의 천혜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흥시만의 특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와 연계해서 조력발전소를 찾는 이들의 발걸음을 시흥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관광 로드맵의 준비가 시급하다.



시흥시 미용기능장 제1호 서은희씨

글·사진 | 장현숙

2009년도 며칠 남겨놓지 않은 12월 하순경 창조미용학원원장인 서은희씨를 만났다. 서원장은 시흥시에서는 단 1명뿐인 미용기능장이다. 생소했다. 미용에도 기능장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궁금했다. 어떻게 기능장 자리까지 올랐을까? 약속시간보다 조금 일찍 문을 열고 학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누가 들어와도 모를정도로 무엇인가 열심히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보니 헤어스케치였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해요?” “아니요, 꼭 할 줄 알아야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할 줄 알면 미용에 많은 도움을 주겠지요. 그리고 제가 요즘 이 강의를 하고 있어서 틈이 나면 연습하곤 해요” 한다.

봉사는 나의 에너지, 행복의 원천

그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게 나있기도 하다. 우선 그에게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하고 물었다.

“8년 전, 군부대를 시작으로 현재는 정신보건센터, 새터민, 일자리센터, 아동보호센터 등에서 봉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손이 필요한곳이라면 더 나가야지요. 작은 어려움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곳이 오히려 더 애착이 가고, 그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해져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은퇴 후에도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갈 생각입니다” 라고 말한다. 봉사는 그에게 에너지와 행복

감을 준다고 했다. 봉사활동에 학원생들 수업, 주부, 두 아이의 엄마, 아내, 그렇게 바쁜 그가 미용기능장이 된 과정이 궁금했다.

작가가 꿈이었던 문학소녀, 미용의 길로

“미용실을 하기 전에는 책읽기를 좋아해서 작가나 문학평론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대학을 포기하고 22세에 미용기술을 배우게 되었어요. 1988년 미용자격증을 취득했고 바로 취업했죠.” 그의 집은 경기도 삼송리, 직장은 영등포,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먼 거리였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한 달에 두 번 휴일, 월급은 6만원. 새벽 6시 30분에 나와 직장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밤 11시. 3년을 그렇게 생활했다. 그야말로 별보고 나와 별보고 들어가는,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생활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각 한 번, 결근 한번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대로 쓰러지면 죽어도 좋다’라는 각오로 미용기술을 배웠다. 그것은 그에게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오죽하면 주인이 보약을 다 지어주었을까.

끊임없는 노력, 멈추지 않는 도전

그는 결혼 후 3년만에 시흥시에 미용실을 개업하며 다시 미용일을 시작했다. 서원장의 머리 만지는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그의 미용실은 문전성시를 이루게 된다. 보통 2시간은 기다려야 차례가 올 정도로, 주말이면 더 바빠진 그, 남편은 그런 서원장이 미용



실을 그만두기를 바라고 갈등 끝에 서원장은 미용실 문을 닫게 된다.

그렇게 바쁘고 돈을 잘 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에 들어앉으니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뻔한 일. 그는 미용학원강사로 방향을 바꾸어 미용일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졌고, 성공하고 싶은 욕구가 솟구쳤던 것이다. 학원 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에 지금의 창조미용학원 원장이 되었다.

원장이 된 후로도 그는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2006년 경락마사지 자격증 취득을 시작으로 네일아트 2급 자격증, 헤어스케치 교사자격증, 메이크업 3급, 그리고 2008년 미용기능장까지. 미용기능장은 해마다 4천여 명이 응시하지만 40~50명 정도가 합격하는 고난도의 과정이라고 한다. 전국에 500여명 뿐이고 시흥시에서는 서원장 단 한 명 뿐인 것이다.

두 번째 기능장 시험에서 합격

“처음 본 기능장 시험에 떨어진 후 두 번째 시험은 내 사생활을 전부 반납하다시피 하면



서 준비했어요. 봄, 가을을 좋아해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오는 전화도 겁났어요.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그런 것을 일일이 챙기다 보면 맥이 끊겨 공부에 지장이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2번째 미용기능장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찌나 좋은지 두 달 동안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 모르고 잠을 자다가도 혼자 웃음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미용기능장시험은 1차 이론시험에 합격해야 2차 실기시험의 자격을 얻는다. 2차 실기시험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 된다. 실기시험은 그림과 지문(문제)만 보고 해독 후, 제한시간 35분 안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기술을 해야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잘한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는 고난이도의 시험이라고 한다. 실기시험에는 커트, 파마, 업스타일 등의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된다.

제2의 고향 시흥에 미용대학 세우고 싶어

현재 그는 월간뷰티라이프 스케치강사로 활동 중이다. 또 제정구 장학회이사, 초록세상지역어린이센터 운영위원, 창조미용봉사단 단장이기도 하다.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에게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물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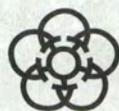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한테 제가 하

고 있는 미용을 익히게 해서 제 뒤를 잇게 하고 싶어요. 작

가가 꿈인 딸아이에게 제가 직접 제안을 했어요. 그 길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길이잖아요. 딸아이가 일주일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그런다고 하더군요. 작년(중학교 3학년)에 미용자격증을 땀고 상도 탔어요. 상을 탄 것을 보면 소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요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연습을 해요. 본인도 아주 재미있어하고요. 그리고 시흥시에 미용직업학교, 미용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 꿈입니다. 또 허락한다면 제가 60~70세가 될 무렵 시흥시에 미용대학교도 세우고 싶어요.”

미용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동안 인식되었던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달라져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놓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한다.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주부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무엇든 시작하라고 용기를 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대학 강단에도 서고 싶다는 또다른 그의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꿈이 많아서인가 활력이 넘쳐 보이고 무척 행복해보였다. 그는 봉사약속이 있는 날이라며 주섬주섬 준비해서 학원을 나설 차비를 하기 시작했다.



테마기획

- 천년의 신비 방짜유기
- 군자봉 성황제 민족보존회
- 청소년 수련관
- 또래소리 기자단



천년의 신비 방짜유기, 대를 이어가다

글 | 장현숙 · 사진 | 장현숙, 영일공방

방짜유기 전승과 대중화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영일유기공방(대표 김원수)이 '방짜유기 전시회'를 가졌다. 이번 전시회는 2009년 12월 16일부터 2010년 1월 5일까지 시흥시청 1층 로비에서 시흥문화원(원장 정상종) 주최로 열렸다. 이번에 전시된 방짜유기는 그 우수성과 실효성을 검증 받은 제품으로 시민들의 방짜유기 그릇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방짜유기는 불에 수없이 달구어 두들기는 작업이 반복되어야만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 민족의 민족성과 인내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흥지역에서 방짜유기의 전통과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영일유기공방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생활속에서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시민들이 함께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전시회에서는 5첩, 7첩 반상기, 부부원앙세트, 합식기 세트 등 전통식기, 불고기판 화로, 양푼, 별 촛대, 생활용품, 제사용품, 불교용품, 등 많은 방짜유기들이 선을 보였다.

유독 한 남성이 전시된 방짜유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아주 어렸을 적 고향생각이 나네요. 요즘은 이런 유기그릇을 보기 힘들잖아요. 이 요강, 주전자 좀 보세요. 진짜 정겹네요." 라고 말한다. 추억 속에 빠진 그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다.

방짜유기하면 낫그릇이란 것과 어린 시절 명절이나 제사 때 어머니가 정성껏 닦으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앞마당 한쪽에 가마니를 펴놓고 모래나 기왓장가루를 지푸라기에 묻혀 힘껏 닦으면 노란색깔을 띠면서 윤기가 자르르 흐른다. 그런 방짜유기가 오랫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요즘 다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7첩 반상기 세트

방짜유기의 유래

유기란 놋쇠로 만든 각종 기물을 말한다. 놋쇠는 구리를 주성분으로 하여 주석 등을 섞은 대표적인 구리, 주석의 합금으로 신라시대에 이미 유기를 제작하던 철유전(鐵鑄典)이 있었다.

고려 시대에는 상류층의 식기와 각종 불교공예품으로 유기가 사용되었는데, 당시의 유기는 중국으로 수출도 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점차 늘어나 일반적인 용기로 사용되었다.

유기의 종류는 제작 기법에 따라 방짜(方字)와 주물(鑄物), 그리고 반방짜(半方字) 등이 있는데, 가장 질이 좋은 유기로 알려진 방짜유기는 동1근(16량)에 주석 4~5량을 합금한 것으로 일명 양반쇠라고도 한다.

중국은 사기제품이 주종이고, 일본은 나무그릇이 주종을 이룬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유기제품을 병행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금속 그릇을 선호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이유 중 한 가지가 납중독이었다는 것이다. 로마인들은 납을 섞어 실용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납을 넣으면 합금이 쉬워진다. 그래서 납이 수백 년 동안 대대로 인체에 쌓이게 되었다는 보고다. 중금속인 납을 넣는 것이 그들의 합금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 조상의 우수성과 일반 식기들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방짜유기그릇은 1천여 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전통식기이다. 일제시대에 유기의 원료인 청동을 군수용으로 쓰느라 놋그릇을 아예 만들지 못하게 했으며, 6.25를 겪으면서 무거운 놋그릇 보다 가벼운 양은그릇이 더욱 간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가 하면 난방방식이 재래식 아궁이에서 연탄화덕으로 바뀐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연탄이 뿜어내는 유독가스가 놋그릇을 변색시켜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나마 남아있던 유기그릇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일반인들에게 방짜유기의 우수성이 전해지며 차츰 반응이 일어났고 최근 실험을 통해 속속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방짜유기의 효능

- 식중독균 등 각종 유해세균 살균 효과(0-157균이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사멸됨)
-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성분 생성
- 각종 영양소(단백질, 비타민) 장 시간 유지(사기와 스테인레스는 금방 소멸됨)
- 농약, 유해성분 등 독성 물질 검출

유기그릇은 쓰기 불편하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 유기그릇은 다른 그릇처럼 편하게 쓰면 된다. 유기도 보통 그릇처럼 일반 세제에 수세미로 닦아주면 된다. 단, 수세미는 철수세미만 쓰지 않으면 되고 매일같이 사용하면 유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 시에는 물기를 제거한 후 비닐이나 신문에 싸서 보관하면 된다. 광택제는 얼룩이 지거나 변색이 되고 색상이 싫증 날 때만 사용하면 된다.

물론 다른 그릇보다 조금 무겁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무겁다는 단점 하나로 놓치긴 아까운 더 큰 장점이 많은 그릇이 방짜유기이다.

시흥시에도 '방짜유기'를 만드는 곳이 있다.

방짜유기를 만드는 곳이 시흥시에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궁금해졌다. 방짜유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흥시 금이동에 있는 영일유기공방을 찾았다.

주변 환경이 쾌적하지 않음을 한눈에도 알 수 있었다. 요즘 웬만한 곳은 자동화가 되었지만 유기그릇은 일일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했다. 그만큼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야하는 고되고 힘든 작업인 것이다. 작업장으로 들어가 봤다.

공방대표는 직원들 사이에서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모두가 똑같은 작업복 차림에 누가 직원인지 대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 삼복더위의 여름이나 추운 날씨의 겨울에도 뜨거운 불앞에서 쇠와의 작업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였다. 발걸음을 땀 때마다 흥먼지가 입안을 텅텅하게 만든다. 두 사람이 지나가면 어쩔 수 없이 부딪쳐야하는 좁은 공간. 그렇게 열악한 작은 공간에서 11단계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의 유기그릇이 소비자에게 전달 된다.

이번 전시회를 주관한 영일유기공방 대표인 김원수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방짜유기에 입문한 특별한 동기는?”

“특별한 동기는 없어요. 예전에는 생업을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일이 너무 힘들어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도 많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비록 처음에는 먹고 살기위해 시작해온 일이지만 내가 그만두면 안 될 거란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힘든 일이지만 그런 작은 생각에서부터 지금까지 유기그릇을 만들게 된 것이지요. 그동안 힘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공장부지, 자금문제, 환경도 좋지 않고 힘든 일이라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는 일은 더 어려웠어요. 우린 아주 영세업체라 나라에서 지원금도 못 받고 있어요.” 최근 들어 유기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서 형



편이 조금 나아진 것이라고 하는 환경이 그 정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전에 잊혀져가고 사라져갔을 때에는 어땠을까? 감히 짐작도 못 할 일이다.

“요즘들어 방짜유기그릇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옛날 우리선조들이 쇠를 녹여 만들어 계속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 언제부터인가 잊혀져가는 방짜유기를 새롭게 다시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예전에는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것들도 모두 없애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찾고 있어 반가운 일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방짜유기를 지켜온 이유는?”

“제작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요즘은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전통을 지켜 나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누군가는 이것을 지켜야만이 우리나라의 놋그릇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혹시 김원수씨의 대를 이을 전수자가 있나요?”

“다행히도 아들이아가 내 뒤를 잇겠다고 해서 요즘 이곳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도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바쁘면 아들이아가 도와주고는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방짜유기작업을 했는데 아버지 대에서 이일이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내 뒤를 잇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라고 말한다. 그는 아내의 고생도 오늘날 자리 잡는데 큰 몫을 했다고 하면서 미안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도 주문받고, 포장하고, 보내는 등 잡일은 아내가 맡고있다.

아버지의 대를 잇고 싶다는 아들(29세) 김영호씨와 그의 어머니도

생활속의 방짜유기 선례

- 부패세균을 살균하여 각종 채소(거의 한달 동안)나 생선 등 음식물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싱싱함이 유지 된다.
- 보온·보냉이 좋아 요리직후의 온도를 유지해줘 음식 맛이 살아난다.
- 미나리를 놋그릇에 씻으면 거머리 등이 떨어져 나간다. 방짜 양분이 없으면 작은 놋쇠 수저라도 그 속에 넣어서 씻기도 했다. 즉, 놋쇠는 해충을 소독하여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 스님들의 식발 기구인 '삭도'는 반드시 방짜로 만든다. 자주 삭발하는 스님들에게 닳나지 않는 같은 방짜 밖에 없었다.
- 오이지를 담글 때 놋그릇을 닦았던 지푸라기를 얻어놓으면 오이가 더 파랗게 되고 맛있어진다. (윤숙자 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
- 놋그릇을 사용하면 풍에 좋다. (풍은 미네랄부족으로 올 수 있는데 방짜유기는 미네랄성분을 방출한다.)
- 놋그릇에 화초를 기르면 훨씬 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방짜수저로 바꾸는 그날부터 입병이 안 생기며 있었던 입병도 씻은 듯이 낫는다고 한다.



사각접시(디자인특허)

제작과정

① 재료 합금 과정

구리 78%과 주석 22%를 합금 과정에서 주석을 녹인 후 구리를 녹인다.

② 재료 녹이는 과정

다 녹인 재료를 인코더(씻물을 붓는 틀)에 뽑는다. 녹인 재료를 잘라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 화독에 넣어서 녹인다.

③ 흠을 다지는 과정

씻물이 녹을 동안 틀에 물건모양의 형틀을 넣은 후 흠을 다진다.

④ 흠을 말리는 과정

다진 틀을 씻물이 흡속으로 파고 들지 않기 위해 그을음으로 말린다.

⑤ 틀 고정 작업

그을음 말린 틀을 씻물을 붓기 위해 죽대로 고정시킨다.

⑥ 씻물 주입

다져진 틀에 씻물을 주입하여 그릇의 형태를 만든다.

만나보았다. 김영호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방짜유기의 전수자를 자청했을 때 반대했다고 한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그렇듯이 그의 어머니도 그렇게 힘든 일을 자식대에까지 대물림 한다는 것이 무척 안쓰럽고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영호씨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시키고 아버지의 대를 잇게 된 것이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2대째 방짜유기 전수자로 나선 영호씨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일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이 평생을 바쳐 이루어온 방짜유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유기그릇은 사람에게 좋은 점이 아주 많은 데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게 유기그릇을 예쁘고 편리하게 디자인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방짜유기를 세계에도 널리 알리고 싶고요. 몇 년 전 우리 집에 놀러온 선배에게 어머니가 유기 밥그릇에 밥을 담아준 적이 있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밥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래요.” 라고 말한다.

그의 어머니도 아들 영호씨가 알아서 척척 일을 해줘 많이 편하다고 말한다. 영호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간편하다는 이유로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용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영일유기공방의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쯤 도창동으로 공장을 옮길 생각입니다.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방짜유기 작업하는 과정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체험관, 전시장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관내 학생들은 물론 타지에서 시흥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견학을 할 수 있고 체



용 7봉 촛대

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더욱 활성화시켜서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내년에 도창동으로 옮기면 지금의 '영일유기공방'을 '시흥유기공방'으로 고쳐 시흥에도 방짜유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방짜유기 제작과정은 11단계를 거쳐야 끝이 난다. 대부분의 과정이 불과 함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힘든 과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어려운 그 작업을 포기하지 않은 김원수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전시회를 주최한 시흥시문화원 관계자는 2009년 제1회 방짜유기 전시회가 성황리에 끝난 것을 계기로 매년 1회~2회 정도 전시회를 가질 생각이라 전한다. 그런가하면 40여년 동안 '방짜유기'만 고집해 온 김원수씨가 그동안은 생업에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안타까워, 앞으로는 무형문화재 대열의 문을 여는데 도움을 줄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시흥시의 축제 때 전시회를 통해 시흥시를 알리는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기를 기대해 본다.

지금 이 시간에도 1회용 용기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릇하나에도 장인정신을 아끼지 않는 김원수씨가 있기에 희망의 불씨는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이다. 김원수씨의 40여 년을 바쳐온 방짜유기에 대한 희생과 사랑. 그의 말처럼 지금보다 더 발전하여 다음 세대에 유산으로 남기고 싶다는 바람이 꼭 이루어지고, 앞으로는 그의 아들 김영호 씨가 계획한 것처럼 더욱 활기찬 활동을 기대해본다.

또 시흥의 명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말이 새삼 마음에 와 닿기도 한다.

제작과정

- ⑦ **흙에서 그릇을 털어 내는 과정**
 씻물 주입 후 완성된 제품을 흙에서부터 분리한다.
- ⑧ **담금질 하는 과정**
 분리한 제품을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 담금질을 한다.
- ⑨ **재료 녹이는 과정**
 열에 가열 후 차가운 물에 그릇을 넣고 식혀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
- ⑩ **마무리 작업**
 담금질 한 제품을 가질(로구로)로 깎아 낸다. 가질된 제품을 연마(빠우)하여 매끈하게 완성시킨다. (이 단계에서 무광/유광이 결정됨)
- ⑪ **포장단계**
 고급선물 박스포장, 보자기포장, 오동나무 박스포장



시흥시 군자봉 성황제 민족 보존회

글 | 정영미 · 사진 | 정영미, 시흥문화원

매년 음력 10월 3일 군자봉 정상 군자성황사지(시흥시 향토유적 제14호)에는 주민들의 안녕과 화합을 다지는 군자봉성황제가 열린다. 근 천여 년 간 한 해도 빠짐 없이 이어져온 시흥지역의 대표적인 기원풍습이라 한다.

성황제의 의례는 당주가 주민들이 봉안한 서낭기를 군자봉정상으로 옮기는 절차로부터 부정→산신맞이→장군신장→상대감→별상→뒷전의 순서로 진행되어 각 의례절차를 통해 신을 곳에 청하여 들이는 청배과정, 청해온 신을 가무를 통해 즐겁게 해드리는 오신(가무)과정, 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신청(공수)과정, 곳에 초청된 신들을 돌려보내는 송신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김부대왕(경순왕)과 여러 조상신들에게 주민들과 자손의 번영을 청하고 액을 막아주기를 기원하게 된다.

음악적인 화려함,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성황신을 상징하는 '서낭대'를 모시고 인근 마을을 도는 유가(遊街)는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었으며, 지역의 안녕과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마을의 큰 잔치로 한때는 근 3개월씩 유가 일정이 잡히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차 무속(巫俗)과 관련된 무가의례로 축소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며, 하나의 역사 속 기록물로 남겨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군자 마을의 어르신들과 시흥문화원에서는 미신의 개념을 넘어서 지역의 전통문화로 계승하기 위한 보존회를 만들어 해마다 힘겹게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정현 군자봉 성황제 민속보존회장



한정현 군자봉 성황제 민속보존회장님을 만나 보았다.

보존회 구성 시기와 인원은?

1993년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시흥시 대표로 출전해 발굴상을 수상하면서 군자봉 성황제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해 8월에 몇몇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군자봉 성황제 민속보존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맥을 유지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2004년 4월 시흥시와 시흥문화원에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 사학과에 학술회의를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10월에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군자봉 성황제의 문화적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마을 주민을 비롯 약 30여명의 회원이 있고, 2009년 10월 말에는 군자동 노인회관에서 현판식도 거행하였다.

보존회 역할은?

군자봉 성황제가 전통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는 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매년 행사의 준비에서부터 지역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 축제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과 후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성황제 진행의 어려움은?

성황제가 산에서 치루어지는 만큼 산꼭대기까지 온갖 물건들을 일일이 지게로 지고 나르는 일로부터 행사 진행을 위한 필요 인원의 확보, 마을의 축제로 마무리하기 위한 마을 잔치 음식 준비까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하기에 부인회, 청년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억에 남는 성황제의 모습은?

전쟁 후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던 69년도의 유가 행렬에서는 쌀이며, 옥수수등으로 모여진 마을 주민들의 정성으로 이 지역, 당시 군자 1,2리에 전기를 끌어오기까



지 했다. 그 만큼 모든 주민들이 지역을 위한 기원에 함께 할 정도로 유가의 위력이 당당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는 집 앞에 인줄을 매고 부부동침도 가려가며 엄숙히 유가를 받아들이는 시기이기도 했다.

보존회장으로서의 바램이 있다면?

점차 축소되고, 외면되어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군자봉 성황제가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문화재로 지정돼 오래 보존되었으면 한다. 무속과 종교와의 구별이나, 당주 개인의 행사가 아닌 주민들의 동참 속에서 온 동네의 마을행사로 거듭나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문어나고, 생이었던 우리네 삶의 문화로 오래도록 남기고 싶다. 행사에 참여해온 많은 분들이 역사적 고증의 가치를 지키고 이어주기를 바라며, 주민의 단합과 시흥의 발전을 기원하고, 지역행사로써 온 동네 유가를 돌며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어릴 적 우리네 마을에 장맛비라도 내리면 온 동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냇가에 모여 뜰채로 미꾸라지를 잡느라 수선스러웠고, 서커스단이라던가 콩쿠르라도 있을라 치면, 온통 마을을 비워놓고 둘러 앉아 잔치를 벌였던 기억들은 이제 억지로 떠올리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을 하나의 깊고 깊은 추억으로 물러가 버린 지 오랜 듯 하다. 함께 어우러지며 한 가지 관심사로 동네가 하나 되는 우리 옛 문화들이 이제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을까.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더 나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 하더라도, 조상들의 소박한 전통행사들은 분명 마을을 하나로 묶어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 오는 삶의 구심점이었다. 옛사람들의 '한데 어울림'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또는 종교적 기원의 의미가 아닌 이리 살아왔던 그네들의 삶의 방식을 들여다보고 기억하려는 보존의 의미라면 어떨까?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하려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함께 해주신 고덕영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들의 소통의 장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

글 | 이지영 · 사진 | 시흥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들의 문화욕구해소와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학습 공간과 다양한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7년 5월 개관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은 '자유로운 소통의 장, 적극적인 참여의 장, 다양한 체험의 장'을 슬로건으로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다.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터전

청소년수련관의 주 사업은 역시 청소년사업이다. 25개의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으로서 능동적, 자발적으로 참여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에 의한 수련시설을 만들기에 앞장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자원봉사의 참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등이 그것이다. 또,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력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사고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체육·문화·예술·예절 등의 특기적성 및 C.A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청소년수련활동으로는 매년 'Siheung 끼 Festival' 과 청소년동아리 기획 공연 'Summer Episode' 를 기획에서부터 공연까지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



어 이루어진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가져와 직접 판매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여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벼룩시장이 열리는 날은 수련관 마당이 시민들로 북적거린다. 테마가 있는 마을 이야기 1박 2일 체험학습, 오감만족 놀토체험학습 '넌 집에만 있니? 난 체험하러 간다!' 라는 주제로 월별 놀토를 이용한 테마별 체험학습은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칫하면 마감을 놓치기 쉽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나 홀로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전한 놀이, 문화지도 및 체험학습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급식, 생활지도, 건강검진 등) 등교에서 귀가까지

책임운영을 하고 있다. 특성화프로그램으로는 예다움실에서 예절교실을 운영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른 몸과 마음가짐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과학체험실에서는 과학체험 'Scine-X'를 실시해 어렵고 지루한 과학을 재미있는 체험을 통하여 쉽게 접하므로 과학에 흥미를 유발시키고, 영상을 통하여 별자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문화교육, 생활체육, 수영, 놀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는데 한몫하고 있다.

2009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진로체험교육 실시



넌 커서 뭐 될래? 함께 고민하자!!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각 기수별(1기/2기)로 총 47명을 5회기에 걸쳐 시흥시 관내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했다. “10년 후에 나의 명함을 JOB아라”라는 제목의 이번 프로그램은 시흥시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및 이색 직업 체험, 전문가와의 만남 및 특강 등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해보고 꿈을 찾기 위해 기획되었다.

10대에서 60대까지 내가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일을 적어 보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 생각도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는 ‘꿈 달성목표’

활동과, 자신의 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한 후 유명인들의 꿈에 대한 명언이 적혀 있는 '꿈 카드'를 뽑아 자신과 비교해서 느끼고, 말하기, 이미지맵, Dream Map(생각지도)만들기와 적성검사를 통해 자기와 관련된 직업분야가 어딘지 알려주기도 하였다.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첫날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기도 하지만, 남은 4회기 때는 조금 더 활기차게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송운중학교 2학년 신수민 학생의 1회기를 마친 활동 소감이다.

‘세상에 너를 소리쳐’라는 주제로 이미지메이킹 전문 강사에게 들은 강의, ‘명함 만들기’와, ‘10년 후의 나에게 편지쓰기’도 해보면서 자신의 미래에 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만든 명함에



쓴 곳에 10년 후 그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래고등학교 1학년 오서현 학생의 말처럼 모든 청소년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래본다.

책꽂이를 직접 만들어보는 목공예 이색직업체험, 직업선택 시 우선적으로 삼는 가치관 경매, 명문대학탐방체험 등으로 청소년들은 평소 막연하게 생각했던 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목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마지막 5회기는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소년들 외에도 관내 4개 학교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한 1일 명사초청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초청강사로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활발한 강연활동을 벌이며 웃음치료 신바람 건

강법 등을 책으로 펴낸 황수관 박사로 “도전하는 자가 웃을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2시간에 걸쳐 열띤 강의를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청소년지도사 김민희 선생님은 “아이들이 자기 꿈이 뭔지... 구체적인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대화를 통해서 아이들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앞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진로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의 꿈, 아이들이 갖고 있는 끼를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모든 활동을 끝마쳤다. 수련관은 2010년에도 학교연계를 통한 찾아가는 진로체험, 이색 직업 현장스케치, 대학생 멘토/멘티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찾아갈 계획이다.



전국 청소년수련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전국의 청소년수련관 144개소를 대상으로 2009년 7월부터 9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청소년수련관 평가에서 시흥시청소년수련관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정명진 관장은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한 개발 및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 중장기 시설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사회의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모든 대상을 아우를 수 있는 시흥시의 명문 청소년육성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희망을 취재하는

또래소리 기자단 출동

글·사진 | 장현순

또래소리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겨울방학이다. 창밖의 온도는 영하 14,5℃. 실제 느끼는 체감온도는 영하 22℃의 매섭게 추운 날씨이다. 하지만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대야종합사회복지관 1층 기능교실로 하나둘씩 모여든다. 잠시 후 소곤소곤 거리는 소리와 함께 삼삼오오 짝을 지어 새로운 작업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시흥시 대야종합복지관에는 '또래소리'란 어린이기자단이 있다. 또래소리기자단은 2007년 9월에 제1호 신문을 발간하였고, 2008년 6월에는 2호에 이어 2008년 11월에는 3호 신문이 발간되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는 제4호 신문이 발간되었다. 그동안 또래소리기자단은 지역 국회의원인 백원우의원 인터뷰, 국회의사당 탐방 등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겨울방학동안에는 신문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교육 할 예정이다. 그날은 신문에 난 글씨나 그림을 이용해서 자신의 꿈으로 '우리집 정원'을 꾸미기로 했다. 그 다음 주는 청소년들의 TV시청에 대해서 취재기획안을 만들고 밖에 나가 직접 취재를 해서 신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강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의를 들으러 온 아이들을 만나보았다.

또래소리기자단은 이런 곳이에요.

2009년 3기에 들어온 3학년 이지원 "아이들하고 놀고도 싶지만 여기 오면 재미있고 좋아요. 화가, 동물병원수의사, 요리사가 꿈인데요. 이젠 신문기자도 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김동연(5학년) "취재할 땐 고생스럽기도 한데요. 기사를 쓸 땐 보람을 느껴요. 그리고 무엇을 하면 몸이 나빠진다가나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에 좋아진다는 뭔가를 알아가는 것이 좋아요. 이곳에 올 때면 설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래도



여기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 잘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한다.

또래소리 기자단의 경력이 4년째(1기)라는 김소은(중학교1학년)은 “학원도 가야 하는데 여기가 더 재미있어요. 처음에는 주변을 알아가는데 그쳤는데 요즘은 새로운 문제를 찾아가고 있어요. 또 처음에는 인터뷰하는 것이 제일 힘들었는데요. 이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김소은 학생은 가장 오래된 경력의 선배기자답게 후배기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지도교사 장은영씨는 “일단 아이들이 부지런해졌어요. 방학이라 늦잠도 자고 싶고, 따뜻한 방에서 컴퓨터게임이나 TV를 보고 싶을 텐데도 여기에 왔다는 것이 그런 것들에게 이긴 것이지요. 그리고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점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스스로들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기사 쓸 때에는 어려워하고 힘들어 해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어서 아쉬웠는데, 방학 동안에 집중적 교육과 취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기자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이 큰 보람이에요.”라고 말한다.

복지관 담당자 정다정씨는 “방학 동안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음식도 직접 만들어 대접하고, 청소도 하고, 안마도 해주면서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어머니들이 그러세요. 그전에는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다녀와서는 청소, 식탁 차리는 것 등을 도와주는 변화한 모습을 들으면 많이 뿌듯해요.”라고 말한다.

또래소리기자단의 공통점

길을 가다가 특이한 것이 눈에 띄면 “저것은 기사 감으로 참 좋겠다. 만약 저것을 기사로 쓴다면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다. 자신이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종이신문으로 발간된 것을 볼때면 무척 자랑스럽



다고 말한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과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또 학교생활과 폭 넓은 교우관계를 갖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하다.

2009년에 발행한 제4호 또래소리에는 환경문제, 양성평등(남자간호사, 여자경찰) 등 결코 쉽지 않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지도교사의 도움으로 직접 취재기획서(주제, 인터뷰질문, 사진촬영 등)를 만들어 현장으로 취재를 나간다. 2010년,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과연 어디가 될까? 기대된다.

취재를 마치면서

이번취재를 마치면서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더군다나 기자라는 어려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라는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다. 어른들의 편견, 고정관념은 말 그대로 기우였다.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아이들 눈을 통해서보는 세상은 무척이나 신선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순수한 마음이 부러웠다.

또래소리기자단의 자격은 초등학교 고학년, 준비물은 식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 많은 아이들이 교육과 함께하는 기사쓰기에 참여하는 멋진 또래소리기자단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인터뷰를 해준 또래소리기자단은 "여태까지 인터뷰를 해오다가 인터뷰를 당해보니(?) 대답하기 정말 어려웠어요. 그동안 인터뷰를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래소리기자단은 한 달에 두 번(놀토). 방학에는 화, 목요일에 모임이 있다.

문의전화 : 대야종합사회복지관 031)404-8112~4

기자단활동내용 : 기사취재 및 견학, 기사작성방법 교육 및 기사작성, 또래소리신문 제작 등



잊혀진 시흥

- 소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
- 옛 기억에 대한 풍경



시흥의 근원은 소리로 나타난다

소리를 찾아 나서다

글 | 임정훈 · 사진 | 시흥문화원

민중 속에 생겨나서 전해 내려오는 민요는 우리의 삶속에 녹아 있는 살아있는 문화이다. 그러나 급변해 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소리는 시나브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지난 해 12월 4일 여성회관 대공연장에서 “박일엽의 시흥시 구전민요 발표회”가 있었다.

시흥시 구전민요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내려온 전통적인 소박한 노래다. 그러므로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대부분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제례나 노동요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박일엽의 시흥시구전민요 발표회”는 어업과 농업을 삶의 기반으로 살아온 시흥 지역의 옛 생활 속에서 불렀던 소리를 찾아 발표함으로써,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내었다는 점과 우리 삶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져 내려온 다양한 곡을 알렸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를 둘 수 있다.

발표회에서 소개되었던 민요를 잠시 들여다보자.

어영도 칠산을 다 쳐서 연평 바다로 돈 실러 감시다.
 돈 실러 간다. 돈실러 간다.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감세다
 이물 돛대는 사리화 피고 고물 돛대는 민장가를 띄웠다.
 연평 장군님 귀히 보소 우리 배불러서 도장원 주시오.
 오동 추야 달 밝은 밤에 새우젓 잡기가 재미가 난다.

에~헤이이 에~헤이이 에~헤이에 에이 에이 에헤이 어하요

‘배치기’ 민요는 경기도 연평에 이르는 서해안 일대에서 어부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로 시흥시의 ‘배치기’는 포동 새우개 마을에서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나 만선이 되어 돌아 올 때 춤추며 불렀던 노래이다. 그때 배가 드나들던 선착장이 지금은 게이트 불장이 되어 버린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잊혀져 가는 소리였던 ‘배치기’ 노래는 그 당시 만선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듯 청중들과 함께 공감했다.

다음은 '언문뒤틀풀이' 노랫말의 일부를 살펴보자.
 열시구나 지화자 좋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 잠깐 잊었구나 ㄱㄴㄷㄹ
 ㄱ자로 집을 짓고서 지긋지긋이 찾아드니
 가가거겨 가이없는 이내몸이 그지없이 되었구나



자자켜켜 자주나 종종애 만났던 임이 영소식이 무소식이야
 조조주주 조별 낭군은 내낭군인데 췌철마다 다 있건만

포표푸류 풍당풍당 풍기나등실 빠져나들면 이꼴켜꼴인볼렌데
 하하허허 한사흘도 다뭇가니 남의 낭군 생각을 하는구나

열씨구 췌씨구 지화자 좋다 아니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전문)

'언문뒤틀풀이'는 '한글풀이노래' 또는 '국문뒤틀풀이'라고도 하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각 절의 첫구로 삼아 사설을 만들어 부르는 '언어유희요'로 수사적인 표현 1)으로 이루어졌다. 시흥시에 구전되어 내려오던 통속민요인 '언문뒤틀풀이'는 거모동에 거주하는 김창문 어르신에게 채록한 노랫말을 박일엽 명창이 발표하였다.

에헤에 에헤에 어아더야 어허야 어러럽마 디여라 내사랑아
 넘어간다 넘어 넘어 간다 자주하는 난봉가 훨훨 넘어간다

물속에 잠긴달은 잡힐 듯 말듯 허구요
 췌든님의 심중은 알듯말듯 하외다
 남산위에 범나비는 췌지만 펄펄 나는데
 연당안에 금잉어는 꼬리만 살살 두른다
 사랑사랑사랑아 내가 놓던 사랑아
 한아름 범척 안구쳐 단들이 놓던 사랑

'자진 난봉가'는 서도민요 '난봉가' 가운데 옛 한량들의 바람기를 빚댄 노래로 '긴 난봉가'를 부른 다음 이어서 부르는 노래이다. 자진(자은)이란 '자주', '빠르게', '짧은'이란 뜻으로 긴 노래를 짧은 노래로 느린 장단에서 빠른 장단으로 넘어가는 노래가 많다.

넘어간다 넘어간다 자주하는 난봉가 훨훨 넘어간다

서설을 시작으로

에헤에 에헤에 어야더야 어허야 어러럼마 디여라 내사랑아

후렴을 부르며 한사람이 본 절을 부르면 여러 사람이 후렴을 제창으로 부르는 장절로 부르게 된다. 우리시의 자진난봉가는 월곶동 방연근 어르신이 젊어서 부르시던 노래로 타 지역 자진난봉가와 서설과 후렴은 같으나 뒤 부분 노랫말이 조금씩 다르다.

이날 소개된 구전통속민요 중에는 '범벅타령'(김창문), '노랫가락,'(이익수, 신현돌) '창부타령'(신현돌) 등을 함께 발표하였으며 박범훈 작곡의 '어화너'가 창작곡으로 발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는 상여소리를 발표하였다. 장례식 재현과 함께 발표되었던 상여소리 중 (자진)상여소리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소리 끝에 새소리나요 어아넘자 어러러
 어~어 어어어 어~어 어러러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어~어 어러러
 인척 가면 언척오나 어~어 어러러
 오만 날짜 일러주오 어~어 어러러
 청춘 하늘에 별도 많고 어~어 어러러
 이내하늘에 수심도 많다 어~어 어러러
 내가가면 아주가네 어~어 어러러
 아주간들 잊을손가 어~어 어러러

우리의 장례문화가 빚어낸 독특한 창조소리인 상여가는 지역별 뚜렷한 차이는 찾아 볼 수 없지만 지방간 가락과 가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살펴 볼 수 있다.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종교적인 색채뿐만이 아니라 상여가의 주제에 따라서도 다르게 불리워진다.

이렇듯 다르게 불리워지는 상여소리는 금이동에 거주하시는 신현돌 어르신 시흥의 (긴)상여소리와 (자진)상여소리를, 방연근 어르신 시흥의 (자진)회다지 소리를 발표하였다. 특히 우리지역에서 '회방아다지'라고도 부르는 (자진)회다지 소리는 장지에 도착하여 하관을 하고 봉분을 다지는 과정에서 흙을 덮고 땅을 다지기 위하여 달구질을 하는 것으로 상두꾼과 상여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불렀다. 시흥시의 상여소리는 고종 승하시에 시흥사람이 상여소리를 불렀다는 설이 있을 만큼 대단한 소리였다고 한다.

민요는 노동요, 놀이요, 작업요, 연정요 등 여러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우리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장르의 민요가 내려왔고, 이날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리를 감상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해야 될 필요성은 누구나 다 느끼지만 이를 위하여 직접 나서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더구나 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 가치를 드러낼 수 없는 무형(無形)이라면 더욱 그러 할 것이다.

소리를 찾아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경기문화재단의 홈페이지 음악자료실에는 경기도지역에 전승되던 토속적인 노래로 '모 찌는 소리'와 '모내는 소리', '김매는 소리' 등 농업노동요를 비롯하여 어로작업과정에서 부르던 어업노동요, 장례의식에서 부르던 상여소리와 회맞는 소리와 흥겨운 놀이판에서 즐겁게 부르던 각종유희요 등이 보존 되어있다.

시흥시에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특징을 담은 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의 경기향토민요가 보존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노래는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때에 잊혀져 가는 시흥의 소리를 안타까이 찾아 나선 국악인들이 있다. 그들은 박일엽(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이수자)명인과 정원철(대한시조협회 시흥시지회)지회장 부부이다.

어촌풍경이 있는 곳은 모두 소리가 있었다.

시흥의 근간은 포동을 중심으로 한 어로문화였다. 이는 포동이 경기도 어촌에서 가장 부촌이었고 만선·무사귀환을 위한 노동요가 발달하였음에서 알 수 있듯이 어업이 주 생업이었던 곳이다.

하지만 정조시대 호조별 방축이 완성되면서 어로문화는 점차로 농경문화로 대체 되게 된다. 안정적인 지주들이 탄생되었던 농경문화 중심에서는 모내기 소리, 김매기 소리, 논매미 소리 등 일부가 채록되어 가사를 남기기도 하였지만 어촌에서의 소리들은 발달되어진 바에 비해 전해진 기록이 많지 않아 이를 찾아내는 것이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바닷가의 소리들은 서도소리와 맞물려 이를 연구하는 박일엽 명인이 서도소리 이수자로서 그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 상태이다. 이미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만선의 꿈 서해바다'라는 제목의 극과 노래를 공연 한 바가 있는데, 이는 포동 새우개 마을을 모델로 이곳이 어로문화였음을 토대로 극화한 것이다.

그러나 시흥시에서 불려지는 소리를 찾아 나선 이들 부부에게 이 작업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소리에 있어서 전문인이긴 하지만 긴 시간 구연자를 찾아 채록을 하는 데에 한 모를 기억하지 못하여 한 두 소절 듣게 되고, 한 두 사람 채록하게 되는데 동네마다 사투리가 심하여 문헌을 찾아 표준어에 가깝게 정리하는 데는

많은 고충이 따랐다.

소리를 모르는 사람은 채록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한 소절을 부르면 그것이 경기, 서도, 남도 민요 등 어느 부분인가를 찾아 풀어내는 일과, 중간 중간 따라하며 다시 채록하고, 한번으로 안 되어 수없이 되풀이 하는 일은 박명인이 맡았고, 문헌을 찾아 정리하는 일은 정지회장이 맡아 하였다.

바닷가에 묻혀 있을 법한 소리, 농경사회 속에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소리를 찾는 일은 이들에게는 더 늦추어서는 안 되는 사명이 되었다. 전수자들의 연로함과 그로 인한 기억의 감퇴 등은 이들의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한다.

경기문화재단에 고유부분의 개발 및 보급부문에 문화원에서 발굴협조를 신청한 상태이지만 절차를 거치고 기다리기엔 시간이 녹록치 않은 것 같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시간이 지나면 이소리가 시흥의 소리인지도 모를 터이다. 시흥시에는 이러한 소리가 있고 앞으로 논매는 소리, 김매는 소리도 다시 복원하고 더 많은 소리를 찾아 악보화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소리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재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삶에 근원적인 소리인 상여소리와 상여가를 발굴하여 기록에 남기는 일 또한 앞으로 해야 할 과제이다.

이들의 진정한 바람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전에 이를 위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포동 새우개 마을에 어촌 민속마을을 복원하여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박물관 등 어로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면 하는 것이다. 우리시에 국악인이 있어, 또 소리를 전해 줄 어르신을 통해 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때,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상설 공연을 통한 시흥시의 소리를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곳에서 경기국악제, 예술제에 “시흥은 없다”라는 아쉬움을 다 풀어 놓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박일엽 명인

박일엽 명인(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이수자)은 시흥지역의 토속민요 발굴 등의 국악 활동으로 지역고유문화 창달부문에서 대한민국 문화원 상을 수상한바 있는 우리시를 대표하는 국악인이다. 박일엽 명인은 남달리 정가(시조, 가곡, 가사)를 사랑하고 고귀성을 알리며 전승하고자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정가발표회를 여는 등 정가(正歌)를 알리는 일에 힘써왔다. 분명하고 단아한 성품처럼 오늘이 시작이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무대에 오를 때에는 의상조차 본인이 디자인부터 색상까지 섬세하게 챙기며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 진정한 예술인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는 명인은 '나를 만나서 행복한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은 없다'라며 설령 섭섭한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하는 마음의 너그러움까지도 보인다. 박일엽 명인은 시흥시 월곶동에 거주하면서 1996년부터 정왕동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있다.

옛 기억에 대한 풍경

가끔은 쿵등 시리게 생각나는
지나온 삶에 대한 추억
고생스러움이 당연히 뭉어나던 시절이었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을까?

글 | 임정훈



풍경 1 - 뱀내장터 소시장

시흥군이던 그 시절.

소래면 대야리 뱀내장터는 경기도 일원에서 유명한 소시장이 서던 곳이다. 처음엔 말뚝 하나에 소 한 마리씩 매어 놓고 시작하였던 곳이 점점 커져 번성기에는 하루에 수백마리 소들의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일과 6일.

뱀내장터에 소시장이 서는 날이면 수원, 군자, 안양, 군포, 부천, 의왕, 반월 등 각처에 여러가지 사연으로 소를 사고팔려는 사람들과 그들이 끌고 온 소들, 또 소몰이꾼과 거간꾼들로 북적였다.

팔려갈 소들은 이른 새벽 주인과 함께 길을 나서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사나운 소들은 마을마다 거주하고 있던 소몰이꾼에 의해 전날 미리 떠나기도 하였다.

소를 장에 내보내는 날, 먹을 것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이른 아침 평소 먹이던 쌀겨나 혹은 보릿겨에 콩 한바가지 또는 그조차 여의치 않을 때는 콩깍지 한 바가지 섞어 쇠죽을 쑤어 먹이기도 하였다.

시장에 나온 소는 중개역할을 하는 거간꾼에 의해 값이 매겨지고, 그 돈은 다시 키울 송아지를 한 마리 산 다음 대부분 자녀들 학비로 들어갈 큰 돈 마련에, 혼기 찬 딸 혼수비용으로, 꼭 사고 싶은 땅마지기가 있을 때 그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어린 송아지가 일을 할 만한 소로, 소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로 크기까지 3년 정도가 걸린다. 그동안 소는 집 앞 외양간에서 든든한 살림 밑천으로 가족처럼 함께 한다.

농사철엔 가장 큰 일꾼으로, 또 소가 끄는 달구지는 짐뿐만 아니라 오일장이 서는 날이면 장구경을 시켜 주는 자가용 역할도 톡톡히 해내었다.

시장이 서는 날이면 소시장 주변 선술집에서 국밥 한 그릇에 대포한잔 나누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정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소의 매매가 이루어지던 곳은 울타리가 쳐졌지만 울타리 밖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요기할 수 있는 국밥집이나 중국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코뚜레, 바, 길마, 쟁기, 워낭, 멩에, 고삐, 여물통과 여물주걱 등 소 용품을 파는 가게 등이 성황을 이루게 된다.

은행이 없었던 시절,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현금을 더 중시하던 시절이었던 만큼 소 판돈을 전대 속 깊이 단단히 무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 다 빼앗겨 도창고개를 한숨과 눈물로 넘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 유학 보낸 아들을 성공시킨 이야기 등 수많은 사연을 남긴 뱀내장터는 1982년 이후 염전과 목장의 쇠퇴와 함께 문명의 이기 속에 사라져 하나의 그리운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제 그곳엔 문화의 거리로 또 다른 모습의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세월은 그렇게 변하는 것인가.



풍경 2 - 꼬마열차라 불리던 수인선 협궤열차

우리지역에는 남한에서 제일 큰 염전인 군자염전과 그 다음으로 큰 염전이었던 소래염전이 있었다. 군자염전의 넓이가 603정보, 소래염전이 580정보이었고 주안과 남동염전이 각각 300정보였다니 염전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상상해 볼만 하다.

염전 앞에는 작은 기차길이 있었고 운전 수 한사람만이 탈수 있는 '가시령차'라 불리는 아주 작은 기차가 염전 밭을 돌며 소금을 실어 날랐다.

1937년 8월 6일 일제강점기, 그 당시 최대 생산되었던 소금과 곡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수원과 우리지역인 군자, 달월을 지나 인천까지 이르는 52Km구간에 협궤열차가 개통되었다.

협궤열차는 우리나라 철도 폭의 표준궤간이 1,435m인 것의 절반 밖에 안 되는 0,762m 에 객차 내 폭도 2m정도여서 마주 앉은 사람의 무릎이 닿을 정도였다니 이열차를 사람들은 꼬마열차라고 불렀고, 뽁뽁 소리치며 달린다 하여 뽁뽁이 열차라고도 불렀다.

협궤열차는 가시령차에서 실어 온 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실어 나르는 장사꾼들과 인천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열차로도 이용되었다. 땀내와 비릿내로 숨막히는 열차속의 진풍경을 보였지만 억척스러움만큼 다감한 삶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삶의 다양한 진풍경이 펼쳐졌던 꼬마열차는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 미처 차에 오르지 못하고 동동거리는 학생의 손을 잡아주는 아주머니와 생선 또는 각종 채소를 담은 합지박을 먼저 올려놓고 미처 기차에 오르지 못한 어머니를 닮은 아주머니의 손을 먼저 탄 학생이 내 밀기도 하였다.

기차가 언덕에서 사람과 화물의 무게에 눌러 못 올라 갈 때면 손님들이 내려서 기차를 밀었고, 안산 시청 앞에서 정왕동-안양으로 가는 버스와 충돌하였을 때는 기차가 넘어지기도 했으며, 정차역이 아니어도 손들고 서있는 사람을 태워가던 그 훈훈한 정감까지 작은 꼬마열차에는 지나간 사연들로 꼭꼭 채워져 있었다.

이러한 사연 많고 정감있던 꼬마열차는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운행으로 막을 내렸다. 월곶포구를 지나면서 보행로가 되어 인천과 시흥을 이어주는 노령다리(예전엔 소래철교)는 이제 그나마도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

수탈과 한과 그리움과 희망을 함께 실어 날랐을 협궤 열차.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전동열차가 씩씩하게 달리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연을 담은 협궤열차

정선의 레일바이크처럼 타는 재미와 추억을 남기며 생태공원으로 연꽃테마파크로 오이도로 우리시를 종횡무진 달려 줄 수는 없을까?

새로운 삶의 모형을 신고...



시흥명소

■ 물왕저수지





물왕저수지에 가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다

글·사진 | 정현순

불경기, 취업난, 100년만의 폭설 등 여러가지 난제들이 우울하게 만든다. 몸과 마음이 충전을 필요로 할 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이왕이면 주머니도 가볍고 마음도 상쾌하게.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곳인 시흥시 물왕저수지로 가보자. 그곳은 안산, 인천, 안양, 부천, 서울 등 교통편이 좋은 편이라 수도권에서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거기에 가족단위, 친구, 연인들이 와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다.

물왕동에 있는 물왕저수지는 어떤 곳일까?

서해안고속도로 목감IC에서 물왕저수지 방향으로, 시흥시청에서 안양 및 목감동 방향의 동쪽으로 차를 몰아 둔대고가, 범배터널을 지나 약 4km 지점에 이르면 답답했던 마음을 확 트일 것 같은 통쾌함을 주는 경관이 있다. 그곳이 바로 시흥의 명소 '물왕저수지'이다.

1950년대 초부터 낚시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곳으로, 지금은 아름다운 각종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어 가족 및 연인들이 자주 찾는 수도권의 이름난 곳이 되었다. 또한 시흥 9경중의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곳이다.

일반적으로는 '물왕저수지'라고 부르지만 원래이름은 '홍부저수지'로 통칭된다. 저수지를 설치한 1945년 준공 당시에 저수지 물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행정구역상 시흥군(지금의 시흥시 연성동)과 부천군(지금의 시흥시 매화동)지역이어서 시흥군의 '홍'과, 부천군의 '부'를 취하여 '홍부저수지'라고 한 것이다.

저수지이다 보니 낚시꾼이 많이 찾는 곳이고 마을에서 70년대 양식계를 조직하여 치어를 방류하는 등 저수지 관리를 잘 해서 인근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전용 낚시터를 만들어놓고 자주 들렀다 하여 더욱 유명해지기 시작하였다.

저수지 주변 마을이다 보니 경치가 뛰어났다. 병풍처럼 <운흥산><관모산><안살미> 봉우리가 저수지를 감싸고돌면서 자연이 어우러진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다. 밤이면 화려한 불빛의 야경이 저수지 수면에 반사되어 더욱 정감을 불러일으킨다.

'물왕동'은 안말, 장자골, 능골의 3개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다. '안말'은 안쪽에 있는 마을, '장자골'은 장자(부자)가 예전에 살았던 마을, '능골'은 큰 능을 쓰려고 했던 마을에서 유래한다. 이 3개의 부락을 총칭하여 현재 사용되는 물왕동이라는 마을명은 만물이 왕성한 마을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 문헌에 의하면 물왕동이외에 물항동이라고도 나와있다. 그 뜻은 언제나 물이 많을 뿐 아니라 물이 좋은 마을이란 뜻이라 한다.

물왕동의 볼거리와 먹거리

물왕저수지 주변의 풍광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산책을 해도 좋을 것이다. 물왕저수지 근처에는 KBS-TV 드라마 「용의 눈물」로 유명해진 이숙번의 묘와 따오기를 작사한 한정동의 묘 및 동요비도 있다. 오래전부터 그 명성이 자자한 연꽃테마파크가 있는가하면 시흥시의 주요유적인 조남리 지석묘의 볼거리를 제공해 준다.

또 시에서는 먹 거리로 가득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위해 물왕동주변 1.5Km를 '연 음식테마로드' 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연은 다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건강음식으로 각광받고 있기도 하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연 음식으로는 연 쌀밥, 연 갈비찜, 연 코다리, 연 아귀찜, 연 정식, 연근차 연 칼국수 등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대표음식으로는 시골보리밥, 한정식, 정통밥집, 토담골, 묵밥, 라이브 카페가 운치를 더해주고 낚시 외에 낭만과 추억의 장소로 자리 잡았다.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하다. 입맛에 맞는 맛난 음식을 먹은 다음 저수지가 보이는 카페를 찾아 차 한 잔 마시면 그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여행. 에너지충전에는 최고가 될 것 같다.

주머니는 가볍게, 몸과 마음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행 방법

1. 물왕저수지 부근에서 많은 볼거리로 눈을 즐겁게 해준다.
(저수지 주변을 산책해도 좋을 듯하다.)
2. 연꽃테마파크, 조남리 지석묘, 이숙번의 묘, 동요비 등을 둘러보고 그곳의 맛있는 음식으로 입을 즐겁게 해준다.
3. 함께한 가족, 친지, 연인 등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긴다.
4. 하루를 정리하고 1년의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물왕저수지 그곳에 가면 색다른 맛으로 몸과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물왕저수지 '연 음식 테마로드'

시흥시의 관광명소인 연꽃테마파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볼거리로 자리를 잡았다. 시에서는 볼거리만으로 그치지 않고 먹거리가 가득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기위해 물왕동주변 1.5Km를 '연 음식테마로드' 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연' 은 이미 지역특산물로도 자리를 잡고있는 만큼 연을 주재료로 활용하여 메인요리를 취급하는 연(蓮)전문 음식점 4개소와 연반찬요리 3종 이상을 취급하는 연(蓮)반찬 인증음식점 17개소 등 총 21개소 연(蓮)인증음식점으로 지정했다.

시는 연(蓮)을 Local Food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연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 국수 등 10여종의 상품을 개발하여 브랜드화 하였으며, 3회에 걸친 전국단위 연 음식개발경진대회 행사를 개최하여 시흥연의 대외브랜드 인지도 향상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연 인증음식점 지정을 위해 최근 2년간 한국조리과학 고등학교에서 연과 관련하여 사찰음식 전문가 선재스님과 적문스님을 초빙하여 업소에서 매뉴화가 가능한 연 전문음식 20종을 개발하여 조리기법을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준비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 전문음식점 지정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경기불황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영업자, 그리고 상가 번영회의 적극적인 협의의 결실로 여겨지고 있다. 시는 인증음식점을 대상으로 인증 종류별로 표시판을 설치하고 규격화된 위생복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업소별 위생 상태와 손님맞이 친절서비스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연(蓮)음식 테마로드를 맛과 영양, 그리고 최고의 위생서비스가 있는 식품관광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연은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 수생식물로 뿌리채소로는 드물게 다량의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최근 건강식 식품원료로 각광받고 있으나, 그 효능에 비해 다양한 조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번 연 인증음식점 지정은 연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흥과 시흥연의 대외 브랜드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고급화된 창작 전문음식은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음식문화 기틀을 조성하고, 시흥특산품인 연의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연 음식으로는 연 찜밥, 연 갈비찜, 연 코다리, 연 아귀찜, 연 정식, 연근차 연 칼국수 등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현재 21군데의 연 전문음식점이 지정 되어있고, 연 코다리는 2009년 12월 현재 특허출원 중이다.

좋은 소식이 전해졌으면 한다. 또 다양한 연 음식이 개발되어 물왕동 '연 음식 테마로드'가 시흥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해본다. 물왕동 '연 음식 테마로드'에 가면 색다른 맛으로 몸과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현장스케치

- 우체부 아저씨
- 삼미시장





아저씨~ 아저씨~ 우체부 아저씨~

글·사진 | 임정훈

편지에 대한 소고(小考)

사랑채 마루에 앉아 먼지 풀풀 날리는 시골길을 빨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다.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설 때 대문 우편함에 곱게 꽂혀있던 편지. 설레임으로 조심스럽게 뜯어보던 편지에 대한 추억은 군대갔던 아들에게서 받은 편지였고, 아들의 제대와 함께 편지를 받는 기쁨도 막을 내렸다.

정신없이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편지에 대한 감상은 추억속으로 묻혀져간다. 이제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줄 수 있는 매개체로 쉽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그리고 인터넷 메일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 할 수 있지만 편지처럼 서정적이지는 않다.

우편집배원들의 빨간 자전거는 빨간 오토바이로, 우편배낭은 오토바이 뒤에 달린 우편함으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우편집배원을 보면 가슴이 설렌다.

지금도 여전히 아파트 우편함에는 많은 우편물이 꽂혀 있다. 우편물속에 막연히 기다리던 편지는 없지만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꺼낼 때 아직도 내용물에 대한 반가움이 있다. 때론 고지서 같은 반갑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각종 소식과 정보를 배달해 주는 우편집배원들이 고맙다. 그리고 항상 그들을 기다린다.

우편집배원 김귀업님의 하루

8시 출근 시간에 맞춰 이른 아침식사를 하고 집을 나설 때, 만삭인 아내가 염려스럽다. 그러나 3년 전부터 집배원 일을하며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었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며 씩씩하게 출근을 한다.

출근하여 곧바로 해야 하는 일은 우편물을 구분하는 일. 전날의 특급 배달물과 그날 배달해야 할 우편물을 구분하고, 구역 등기물과 택배 배달물로 구분하여 그 물량을 오토바이에 싣고 담당 구역으로 떠난다.



*김귀업 우편집배원은 그의 담당구역 주민들이 성실한 집배원으로 소개하여 취재하게 되었다.

김귀업님의 담당 구역은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이라 번지수만 있고 정확하게 어디 몇호 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 한 번지에 여러 사람이 살고 있어 정확하게 배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그럴 때는 집 주인을 찾아 세입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만 세들어 사는 사람 중에도 가족 구성원이 파악되지 않아 우편물의 주인에게 정확하게 전달 해주기 위하여 더 많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했다.

등기 같은 중요한 우편물은 직접 전해 주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을 때는 우편함에 재방문을 예고하는 쪽지를 붙여 놓기도 하지만 깜깜 무소식이기도 하고, 자기 우편물인데도 무관심 할 때는 참으로 안타깝다. 또한 법원 등기같은 중요한 우편물에는 사는 곳에 계속 방문 쪽지를 붙여 놓지만 아이들이 생각없이 떼어내 우편물주인에게 억울하게 책임추궁을 받을 때도 있다. 한번은 계속하여 쪽지가 없어져 도대체 왜 없어지는지 숨어서 지켜보았던 적도 있었는데 황당하게 집주인 어르신이지저분하다고 떼어 버리는 것을 발견 한 적도 있었다.

시골하고 다르게 우편 집배원을 택배아저씨라고 부르는 아이들도 있어 인식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지만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보람을 느낀 적도 많다. 많은 우편물에 항상 걸어 다니지 못하고 뛰어다니다 보면 여름철 같은 때에는 어르신들이 땀이 난다고 물도 주고 덥다고 염려를 해주실 때는 고맙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전달해 주는 우편물이 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열심일 수밖에 없다.

4시쯤 배달을 마치고 우체국에 들어오면 그날 등기 배달 못한 것을 정리하고 우편물 반송함에 수거 한 우편물을 보관하는 등 우편물을 정리한 후 퇴근하여 아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가는 길은 나른하지만 즐겁다. 참으로 바빴던 하루였지만 아내가 끓여놓았을 구수한 된장찌개를 기대하며 내일은 오늘 부재중이었던 등기 받을 사람이 꼭 집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본다.

우체부는 더 빨리 걸지 않는다

신현정

우체부가 지나가니까 들국이 소담하니 핀다
개똥지빠귀가 우는가 하면
어느 담 밑에 늦은 과꽃은 세 번을 가장해 울기도 한다
저 우체부 아저씨 조금만 빨리 걸으시면 안되나
늘 그 걸음이다
기쁜 일이거나 슬픈 일이거나 항시 그 걸음이다
아예 자전거는 옆구리에 모시고 다니신다
염소에게 글을 가르치시나
담배 한 대 더 태우고 엉덩이를 튼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나도 기다림이 된지 오래다
오늘은 유난히 행낭이 불룩하시다
하, 새끼 기러기 몇 마리 목을 내밀고 있다
그렇다고 걸음이 더 빨라지지 않는다
그 걸음으로 저기 저 달까지 무난히 갈 것을 내 믿는다

마을길을 지나가는 우체부 아저씨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연하다. 우편행낭 속에는 반가운 사연이 가득 들어 있을 것 같은 그 시절의 향수가 가슴절절하게 피어난다.

삼미시장 앞에서 만나! 삼미시장 그곳엔...



글·사진 | 정영미

넉넉하게 내려 쌓였던 눈이 녹을 기세 없이 도시를 점령해 버렸던 겨울의 어느 날, 신천동의 삼미재래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겨 본다. 딱히 목표 없이, 바쁘게 사는 이들의 삶 속으로 무작정 들어갔다.

추위에 움츠러들던 우리네 마음과는 달리 시장통은 매우 붐비고 활기찼다. 어스름 어둠이 찾아오기 전 이른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려는 부산한 아낙들의 발걸음은 장홍정을 하면서도 동동거린다. 진한 꿀물 똑똑 떨어지는 호떡 한입 베어 무느라고 양손 가득 챙긴 장거리를 잠시 내려놓을 땐 입에 들렸던 마스크도 함께 내려놓는다.



지팡이를 의지해 걸어가시는 할아버지의 등에 멘 가방에는 손주에게 줄 맛난 먹을거리도 함께 들어 있겠지... 이른 장사를 마무리 하시려나 시장 통을 빠져 나가시는 빵튀기 아저씨와 버려진 재활용 박스들을 아무 지게 챙겨 끌고 가시는 아저씨의 발걸음은 벌써 빨라졌다.

심심찮게 들려오는 장사꾼들의 외침에는 질 좋고 싱싱한 생선도, 또 아주 값 싸고 신선한 야채도 후한 인심도 함께 들어있다. 궁실궁실 입안이 궁금해지는 시간, 시장 통엔 온통 맛나게 피어오르는 냄새들과 연기가 조화를 이룬다. 떡볶이, 어묵, 호떡, 만두, 순대, 계란빵, 찐빵, 튀김, 한 여름에나 있어야 할 법한 찐 옥수수까지 섞여 각양각색의 냄새대로 맛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렇다 떡집에서의 뜨끈뜨끈한 연기와 족발 집, 닭튀김 집에서의 냄새도 대단했었다.

추운 난장에 벌어진 과일들은 온통 얼굴이 별장게 상기되었고, 건어물 가게 한쪽에 매달린 코다리는 어느 덧 동태가 되어가고 있었다. 신발가게와 옷가게는 보드라운 털로 뒤덮여 오히려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그 와중에도 배달 오토바이들은 바쁜 틈새를 여유 있게 누비고 다녔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일까? 바닥에 장을 펼치시던 할머니 몇 분이 보이지 않는다. 온갖 야채며 곡식을 손수 다듬어 넉넉히 챙기시던 영건 손이 궁금해진다.



후훗.

이곳저곳 사진을 찍다가 떡집 마님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지나는 이들에게 따끈따끈 떡을 맛 봐다 말고 모자와 두툼한 목도리로 치장하고는 이왕이면 예쁘게 찍어달라는 애교로 발목을 잡는다. 후덕한 웃음에 셔터를 누르게 된다.

훈훈함이 마음을 녹이고 몸조차 녹인다.

시흥시 신천동의 삼미시장은 87년 수인산업도로변에 지하1층, 지상3층짜리 건물 4개동에 133개의 점포로 자연스럽게 재래시장 형태를 형성하게 되었고, 그 이래로 시흥시민의 꾸준한 사랑을 안고 자리지킴을 해 오고 있다. 지역의 이정표와 간판이 되어 누구나 삼미시장을 얘기해야만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길안내의 역할 또한 오랜 세월 해내고 있었다. 그러나 대형화된 유통구조와 온라인을 통한 홈쇼핑 매장 등의 출현이 사람들의 삶에 편리함으로 파고들었고, 오프라인 재래시장의 매출은 이로 인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2004~2005년 환경개선자금으로 낙후되고 열악했던 시장의 모습을 아케이트설치와 외벽의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화로 갖추었고, 개방화장실 등을 통한 시장 서비스, 또한 희망근로 상품권 할인 행사 등 자구노력을 함께 하며 삶의 버거움을 풀어나간다.



삼미시장 입구의 분수대와 미관광장은 시흥시민의 소통의 장으로써의 역할 또한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때마다 치뤄지는 선거철에는 유세 현장으로, 온 국민의 뜻이 필요한 순간이면 촛불집회의 장으로, 또한 대통령의 서거시에는 분향소로,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순간이면 단식투쟁 장소로, 또 주민들의 풍요로운 잔치가 되는 온갖 공연 장소로도, 늘 모이고 흩어지고, 환호하고 애도하며 그렇게 한결같이 함께 해 주었다.

삼미시장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을 어려움 없이 만날 수 있다. 동네에서 만나기 힘들었던 이웃들을 오히려 시장통에서 만나 반기고, 어깨 스치고 지나치다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친근함에 넉넉해지고, 따끈한 어묵 국물, 호떡하나라도 서로 먼저 나누려는 인간미를 심심찮게 보게 된다.

삼미시장 앞에서 만나!

밤이 깊어 갈수록 그 많던 발길은 잦아들고 이곳저곳 하루의 고단함을 달아걸며 시장은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한 그들의 자리를 비우게 된다.



문화탐방

■ 정선 5일장 문화탐방기



정선 5일장 문화탐방기

글·사진 | 정원철(대한시조협회 시흥지회장)

대형 수퍼마켓과 백화점 그리고 상설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내게 정선 5일장 탐방 소식은 몇 가지 궁금증을 던졌다. 특이한 상품이 있을는지, 관광객은 얼마나 오갈지, 상설공연이 있다는데 성심껏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관객 입장에서선 불만인지 등이 궁금했다.

아침 7시 반, 시흥문화원에 도착하니 오늘의 동행 가족들이 속속 도착한다. 8시에 탑승을 마치고 넝쿨장미 늘어선 가로를 지나 정선으로 출발하였다. 문화가족들의 문화수요 충족을 위하여 5일장 탐사를 준비하였다는 원장님의 인사말에 이어 부원장님이 준비한 떡을 나누어 먹으며 정선으로 향했다. 버스 뒷좌석에선 김영기 이사님의 훈훈한 화술에 웃음판이 벌어진다. 경제적 동기에 분주한 현대인들이라지만 전통 문화를 돌아보는 모임은 향시 마음을 훈훈하게 한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흥문화원 문화관광해설사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느덧 정선이 다가왔다.

폐교를 이용하여 추억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정선 아리랑 학교'에 들리니, 어린 시절에 보던 물건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다. 찌그러진 양은 도시락이 눈길을 끌더니 모퉁이 진열대 위에선 빛 바랜 인쇄물이 눈에 띈다. 동족상잔의 6.25 전쟁때 유엔군 총사령관이 발행했던 '안전보장증명서'와 '통행증'이 있다. 집안 어른들의 전쟁 회고담에 등장하던 그 증명서를 보니, 김일성 고지 전투에서 온몸에 파편을





맛고 부상하였다가 대대원 생존자 2명 중 한 명으로 생환하셨다가 명예제대하신 아버지 생각이 불현듯 떠올른다. 그같은 희생을 치루며 대한민국 현대사는 진행되어, 오늘날 부강한 나라가 되어 평화로이 문화탐방을 다남이 경이롭다. 내 주위를 감싸 안고 있는 시대적 환경들이 감사하다.

이윽고 정선 5일장에 도착하였다. 2일과 7일에서는 5일장은 막 관광열차에서 내린 관광객들로 붐빈다. 시장 곳곳에서는 군청 직원들이 '정선여행' 팜플렛을 돌리고 있다. 우리 문화원 식구들은 먼저 시장통의 식당으로 흩어져 들어갔다. 올챙이 국수에 '수수 부끄미'도 별미였고, '아우라지 막걸리' 한 잔을 걸치니 '곤드레밥'이 술술 넘어간다. 정선장 고유의 음식으로 입맛을 돋우니 많이도 들어간다. 묵밥을 하나 더 먹고서야 일어섰다. 식사를 마치고 걷는 장터, 더덕 냄새가 소매를 붙드는가 하면 곤드레 장아찌가 시선을 끌고, 손만대면 그대로 벌어질 듯 살구가 입맛을 다시게 한다. 느닷없이 산초, 돌배, 머루, 다래 나는 가을에 다시 오고 싶어진다. 병풍같은 가을산을 올려보며 장터에 들어서면 장터도 붉고 노란 색으로 물들어 있을 것 같다. 어느 한식집 주인이

시험삼아 식재료로 썼다가 이제 강원도 특산물이 된 곤드레 나물, 말린 것 한 묶음 사면서 쌈 싸 먹게 생나물을 조금 달라고 했더니 한 봉지 그득 담아준다.

시장 끝에 연한 상설공연장에서의 '정선아리랑 공연'은 반복되는 단조로운 가락에도 불구하고 흥미넘치는 공연이었다. 꽤 긴시간 정선아리랑을 부른다. 북, 장구, 그리고 통나무 위로 떨어지는 장단에 맞추어 삼베실을 감아내는 아낙, 향아리속 엮어진 바가지에 장단을 맞추는 아낙들이 돌아다니면서 한 소절씩 정선 아리랑을 부른다. 정선 아리랑은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지어낸 가사가 천소절이 넘는다고 한다. 끝없이 반복되는 아리랑 가락에 엮어진 수없는 사연들, 이것은 음악이라기보다는 가락에 엮은 문학이 아닐까 싶다. 삼박자씩 4음보로 이어지면서 세 번 반복하고 끝내는 것이 시조의 삼장 12음보와 같음을 알았다. 공연을 보고는 다시금 쇼핑에 나섰다. 난전에 진열된 짚공예품이 있길래 초등학교 6학년인 막내 몫으로 삼으로 삼은 짚신 한 벌 사고, 정선 고유의 야생화라도 하나 살까 화원을 기웃거리다 섬백리향 한 뿌리 샀다. 산골 오지의 장터에서 섬에서 자생

하는 야생화를 산다는 것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유통의 발달로 필요한 물건은 어느 곳에서든 오가는 현실이니 아이러니라 할 수도 없건만 혼자 재미있다. 빈둥빈둥 장터를 돌면서 눈요기, 귀요기를 하면서 이러한 장터를 운영하는 군(郡)측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며 부러워진다. 우리 시흥에도 연안에서 잡은 해산물과 농산물이 그득한 오일장 하나 잘 키웠으면 싶다. 도일장과 뱀내장을 번듯하게 키우든가 월곶 공원이나 갯골 공원 근처 해안가에 면해 있는 어딘가에 오일장 하나 정책적으로 육성하면 어떨까 싶다.

장터를 벗어나 민속촌을 찾아갔다. 정선 읍내를 가로지르는 조양강가에 마련한 '아라리촌'은 장터에서 가까웠다. 아라리촌 입구에는 문화관광해설사 두 사람이 앉아 양반증을 써 주고 있다. 실학자로 널리 알려진 조선조 박지원의 소설, 양반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노래하던 양반전을 알리며 정선의 역사 문화적 입지를 알리려는 아이

디어였다. 양반전 속의 주인공 정선 사람 서생을 살려낸 정선군측의 노력이 가상하다. 민속촌의 이름으로 명명한 아라리촌 역시 인상적이다. 아리랑 노래의 한 구절을 선택한 발상이 돋보인다. 옛주거 문화를 재현한 아라리촌에는 밭田자 모양의 관북형 가옥도 있었는데, 열손실을 최소화한 추운 지방에 어울리는 가옥 구조였다. 또한 전통 와가와 굴피집, 너와집, 저름집, 돌집, 귀틀집 등의 지붕을 엮은 재료의 다양함이 놀랍다. 어떻게든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노력이 곳곳에 돋보였다. 아라리촌 내에는 물레방아가 돌고 통방아도 쿵덕거리고 있었다. 구유에 물이 하나 차면 쿵덕하고 방아 한 번 찢고, 다시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람사는 역정과 비슷한듯 해서 한동안 서서 보았다.

아라리촌을 돌아본 우리 일행은 정선문화예술회관으로 향하였다. 정선 5일장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정선 아리랑 극'을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상설문화관광 프로





그럼으로 정선군에서 주최하는 '아리랑 고개 너머' 공연은,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과 '무연시 연극단' 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무료 상설공연으로 예전에는 군민들의 자원봉사로 하던 공연이라고 한다. 정선군에서 정선아리랑을 창극으로 만들어 공연을 시작한지 벌써 10년이다. 약 400여석이 꽉 찰 정도이니 성공한 공연인데 더욱 큰 성공으로 보이는 것은 각 예술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통합되어 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점이다. 군립예술단과 극단이 하나가 되고, 거기에 서양 악기로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락밴드 '고구려' 삼위 일체화한 공연이다.

자율성이 담보된 통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예술인이라면 다 알 것이다. 개성이 강한 예술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것은 아리랑이라는 전래의 소재와, 관광만이 살 길이라는 절박한 지역 의식을 하나로 묶은 것이 아닌가 싶다. 정선군은 인구가 5만명이 안되는 작은 시골이어서 이러한 통합이 가능했던 것이 아닐 것이다. 전통예술과 현대 예술이 함께 바라볼 목표점으로 아리랑의 보존 및 홍보라는 데에 합의했을 테고, 군청에서는 각 단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통합을 주선했을 것이다. 풍문으로 듣기에 강원도내 대학의 참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학계의 연구와 예술계의 목표점도 일치하여 학예(學藝) 연계가 되었을 것이다. 오로지 관광산업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하는 정선군 입지의 절박성 또한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나로서도 통 시선을 뚫 수 없었다.

돌아오는 차중에서 내내 생각에 잠겼다. 전통예술의 현대화, 전통예술과 현대예술과의 융화, 접목, 느릿한 시조창과 매치할 수 있는 현대 음악은 무엇일까, 현대 악기는 무엇일까, 새우개 마을의 배치기를 무대에서 복원하고 생금집의 전설을 소재로 노래를 짓고, 연극화를 추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오래 머물었다. 눈앞에 병그러지는 과제들, 전통민요와 창작 민요를 조화시킨 소리극, 전통악기와 현대 악기의 조화, 그 조화에서 끌어낼 분위기, 주제는 현대적, 아님 전통적 전통안무와 현대 안무의 조화, 전통으로 시작하여 현대로 안내하는, 현대로 시작하여 전통으로 안내하는 스펙터클한 조화, 이러한 것들을 한 용광로에 넣고 통합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숙제를 짊어지고 돌아온 정선 5일장 관광길이었다. 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는 문화탐방을 준비한 문화원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께 감사하다.



시흥문화원 2009년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사업실적
자체행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르신역사문화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 일시 : 2009년 5월 27일(수) ● 장소 : 경기도 강화지역 ● 참석인원 : 82인 〈2차〉 ● 일시 : 2009년 10월 20일(화) ● 장소 : 경기도 화성지역 ● 참석인원 : 80인 2. 시흥문화원/시흥역사자료전시관 이전 개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년 8월 28일(금) ● 장소 : 하중동 875-1 조은프라자 1층 / 4층 3. 정선오일장 답사 : 2009년 6월 17일(수) 4. 인천도시축전 견학 : 2009년 9월 18일(금) 5. 시흥시학생글짓기·미술 공모대회 : 2009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상식 : 2009년 12월 19일(시흥시청 대회의실) 6.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 애국지사 윤동욱 선생

향토문화진흥사업

세부사업명	사업실적
정월대보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월대보름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년 2월 7일(토) ● 장소 : 포동 운동장 ● 내용 : 동대항 척사대회, 체험마당(옹마루 엮기 외), 먹거리, 달집태우기, 연날리기 시연, 각 팀 사물놀이 공연.
삼해주전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흥삼해주 전승사업 자료집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2008년까지 숯빛기, 시음회, 성분분석 등 ● 16절 변형판 / 46쪽 / 800부 제작

세부사업명	사업실적
문화교실운영	<p>1. 문화교실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연중 • 전통강좌 : 시조창, 서도소리, 서예, 경기민요, 사물놀이 • 음악강좌 : 통기타, 노래교실, 어르신밴드, 드럼 • 건강강좌 : 요가, 밸리댄스, 라인댄스, 한국무용, 골프 • 공예강좌 : 한지공예, 꽃꽂이 • 언어강좌 : 영어, 일본어, 중국어 • 어린이강좌 : 종이접기, 마술, 통기타, 동화발레, 사물놀이 <p>2. 발표회(효-애너지 페스티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년 12월 19일(토) 10:00 ● 장소 : 시흥시청 대회의실 ● 내용 : 문화교실 발표회, 월미풍물전승사업 발표회, 경로당 발표공연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p>1.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년 9월 4일~5일 ● 장소 : 용인시 종합운동장 ● 참가종목 :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일반부 ● 결과 : 공로상 수상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p>1. 경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연중 ● 내용 : 지정 해설지(소래산 마애상, 강희맹선생 묘 및 신도비) 및 지역 문화관광 해설 담당
군자봉성황제	<p>1. 군자봉 성황제 전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년 11월 19일(음력 10/3) • 장소 : 군자봉 정상 → 구지정 마을 • 내용 : 성황제 및 유가행렬 진행
성년의 날 행사	<p>1. 성년의 날 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년 5월 18일(월) 오후 2시 ● 장소 : 시흥시 청소년수련관 ● 내용 : 지역 군부대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통성년의례 강의 및 성년을 주제로 군부대 장기자랑 진행



시흥문화원 2009년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사업실적
<p>어르신문화학교</p>	<p>1. 어르신 문화학교-잉벌로밴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연중 ● 내용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밴드 결성 후 연습 및 공연활동('대한민국 나이없는 날' 참여 공연 외 다수 활동 중)
<p>다문화 이해교육</p>	<p>1.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연중 ● 내용 :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와 진행 • 한국어 초급 및 중급과정 진행 • 문화이해교육으로 요리실습 진행
<p>월미풍물 전승사업</p>	<p>1. 시흥월미두레풍물놀이 전승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전승학교 4개팀(능곡중, 논곡중, 계수초, 청소년연합팀) 및 일반부로 나누어 월미두레풍물놀이 전수 교육 *2009년 12월 19일(토) 시청대회의실 발표공연 <p>2. 제11회 김제 지평선축제 전국농악경연대회 참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년 10월 10일(예선) / 10월 11일(본선) ● 장소 : 전북 김제시 벽골제 ● 실적 : 대상(국무총리상) 수상
<p>「시흥문화」 제작</p>	<p>1. 「시흥문화」 12호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발간하는 지역문화소식지 및 문화원사업 활동 안내 • 4×6배판 / 120면 내외 / 1,000부 발행

세부사업명	사업실적
문화관광탐방	<p>1. 역사문화탐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전시관 관람 후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해설사 지원) • 우리역사 속 고유문화를 답사하는 관외 문화유적지 탐방 학교, 단체, 일반시민 총 44회 진행
연성문화제	<p>1. 연성문화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 취소 결정(9월 1일)
목감 · 장현지구 생활사유물수집	<p>1. 목감 · 장현지구 생활사유물수집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 택지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지역의 생활문화사 유물을 조사, 수집, 보관, 전시하여 전통문화 보전에 기여함. • 주요수집 : 공덕비, 자선기념비, 4H비석, 장현동 · 능곡동 · 월곶동 연자방아 등
'독조도' 서명운동	<p>1. 일제 때 수탈된 시흥의 인물 강희맹 선생의 작품인 '독조도' 되찾기 범 시민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10일 시청 앞 서명운동 시작 • 서명인원 : 2009년 12월 말 기준 38,235명
역사자료전시관 운영	<p>1. 2009년도 관람인원-7,81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부 : 2,140명 ● 초등부 : 2,725명 ● 중 · 고등부 : 601명 ● 일반부 : 2,345명 <p>2. 시흥역사 사진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09. 2. 7. : 포동운동장(대보름행사) ② 2009. 3. 4. : 연성로터리클럽 행사장 ③ 2009. 5. 19. : 정왕사회복지관 ④ 2009. 5. 23. : 대야종합사회복지관 ⑤ 2009. 9. 18. : 시흥시청 총무과 → 환경정책과



시흥문화원 2010년 사업계획

사업명	사업량	1/4	2/4	3/4	4/4
향토문화진흥사업	17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 일시 : 2010년 2월 27일(토) ● 장소 : 포동 공터 ● 내용 : 길놀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척사대회, 명절음식, 연날리기 시연 등	1	←			
2. 문화교실 운영 ● 기간 : 연중 ● 내용 : 전통강좌, 미술강좌, 건강강좌, 공예강좌, 언어강좌, 어린이/청소년 강좌 등	2	←			→
2-1. 문화교실 발표회 ● 일시 : 2010년 12월 중 ● 내용 : 문화교실 및 월미두레풍물놀이 발표회					
3. 경기도 민속예술제 ● 일시 : 2010년 9월 중 ● 장소 : 시흥시 • 2010년 제8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1			←	
4.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 ● 일시 : 연중 ● 내용 : 경기도 지정 문화관광해설사 6인 활동	1	←			→
5. 군자봉 성황제 ● 일시 : 2010년 11월 8일(월) <음력 10월 3일> ● 장소 : 군자봉 정상, 구지정마을 ● 내용 : 나라와 지역 및 개인의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무가의 레 및 마을 유가행렬 진행	1			←	

세부사업 추진계획

사업량 1/4 2/4 3/4 4/4

6. 월미두레풍물놀이 전승학교

●기간 : 연중 / ●내용 : 전승학교와 일반부 대상 전승 교육.

2 ← →

6-1. 전국대회 참가

●내용 : 전국경연대회 참가 계획

7. 『시흥문화』 13호 제작

●내용 : 문화원 연간 정보소식지 / ●발행부수 : 1,000부

1 ↔

8. 문화관광탐방

●기간 : 연중

●내용 : 관내 학교, 단체, 일반시민 대상으로 전시관 관람과 향토문화유적 답사 및 관외 우수 문화유적지 탐방

1 ← →

9. 제19회 연성문화제

●일시 : 2009년 9월 / ●장소 : 미정

•시흥시 전통문화축제

1 ↔

10. '독조도' 찾기 서명운동

●기간 : 연중

●내용 : 2009년에 이어 지속적인 서명운동과 더불어 일본 도쿄박물관 향의 방문 계획

1 ← →

11. 사회단체지원금 사업 - *미확정

*성년의 날 행사, 단오절, 한가위 행사 중 1개 사업

1 ← →

12. 어르신 문화학교 및 공모사업

●기간 : 연중

●내용 : 어르신으로 구성된 '잉벌로' 밴드의 운영과 활동 지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및 경기문화재단 지원신청 심의 확정 후 추진

2 ← →

13. 자체행사

●기간 : 연중

•어르신문화탐방 / •시흥의 인물 선양사업 등

2 ← →



발행일 · 2010년 2월

발행인 · 정상중

발행처 · 시흥문화원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875-1(조은프라자 4층)

TEL. 317-0827 FAX. 317-0828

기획, 편집 · 디자인아침 435-7200

※이 책은 시흥시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www.Shculture.or.kr